

11

Style 조선일보

Ultimate
Luxury Lifestyle
Magazine

November 2024
vol. 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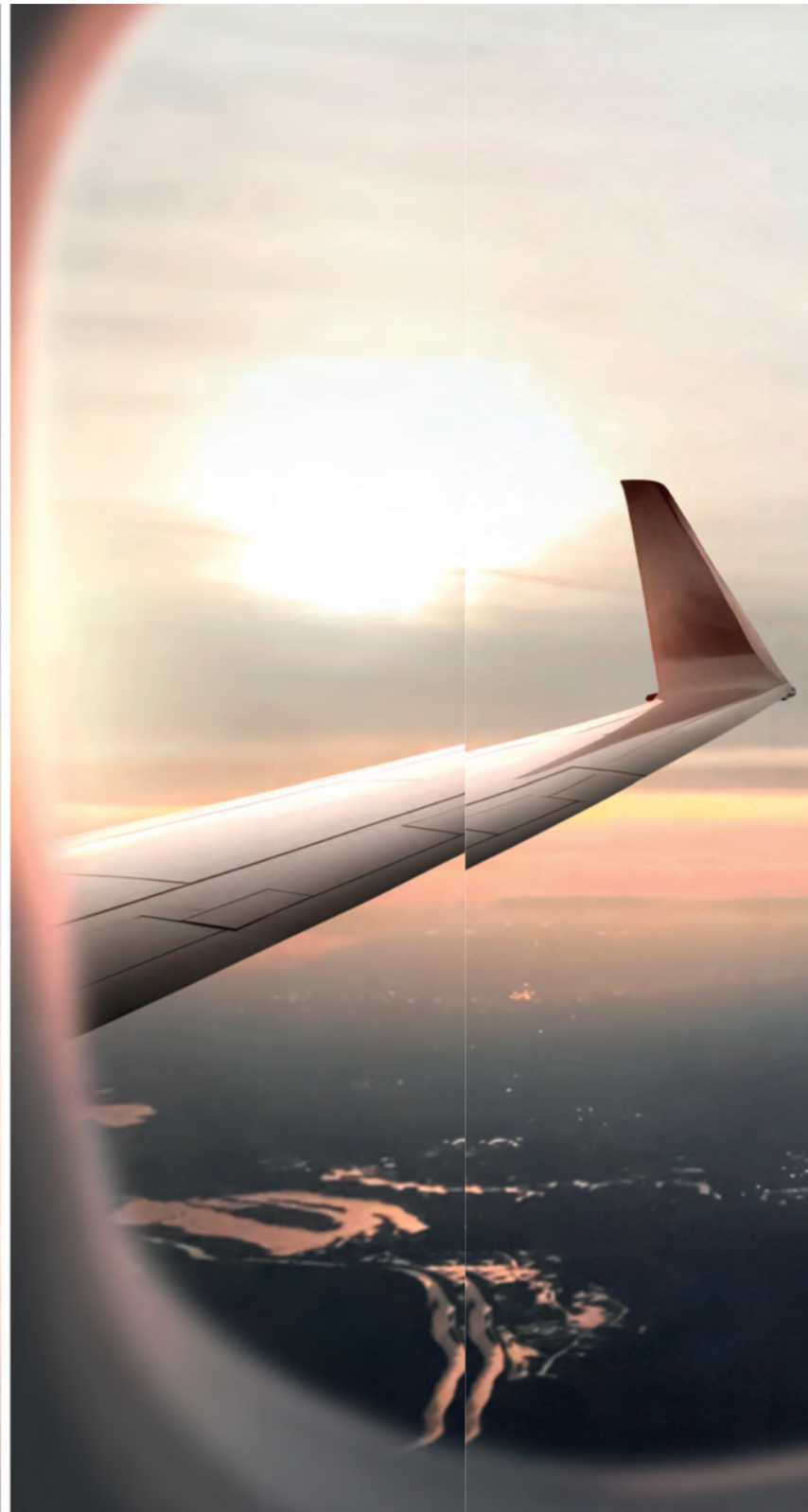
Best in Style



PIAGET



CHANEL



여행으로의 초대

탁월한 기술력으로 우아함과 편리함을 겸비한 시계. 스카이-드웰러는 여행자들이 전 세계의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30일과 31일이 있는 달을 인식하는 사로스 연간 캘린더와 듀얼 타임 기능은 혁신적인 링 코멘드 시스템을 이용해 빠르고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첨단 성능을 제공하는 스카이-드웰러는 메카니컬 시계 제작 기술의 한계를 끊임없이 뛰어넘는 롤렉스 고유의 혁신 문화를 담고 있습니다. **스카이-드웰러.**

#Perpetual #변함없는탁월함



OYSTER PERPETUAL
SKY-DWELLER



롤렉스 글라이드록
익스텐션 시스템



사로스 연간
캘린더



링 코멘드 시스템

롤렉스 공식 판매점


KAIROS WATCH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점 1F
카이로스 02-2639-1960


ROLEX



DIOR

Contents

NOVEMBER 2024 / ISSUE.277

- 10_SELECTION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실용성까지 겸비한 럭셔리 가구와 가전 컬렉션
- 12_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 14_브랜드 파워를 내세운 경쟁 속 다양성의 꿈틀거림 프리뷰 첫날 날씨가 뜨거운 한여름을 방불케 했던 2024 아트 바젤 파리 현장
- 17_거장의 창조혼과 첨단 기술의 유기적 연대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에 이어 글로벌 아트 페어 프리즈 런던(Frieze London)에서도 협업의 미학을 펼친 LG 올레드 아트(LG OLED ART)와 영국 영화감독이자 예술가 존 아콧프라(John Akomfrah)의 만남
- 18_ESSENCE OF EXTRALEGANZA 탁월하고 정확한 위치메이커에서 시작해 금세공에 대한 노하우로 이룩한 명실공히 놀라운 하이 주얼리까지, 매종 피아제가 걸어온 1백 50년을 조명한다
- 22_CHARMING STONES 불륨만으로도 큰 임팩트를 부여하는 빅 스톤 링
- 23_SPORT SPIRIT 견고한 소재와 고사양, 세련된 디자인의 남성 럭셔리 스포츠 워치
- 24_GET THE LIST 당신의 스타일을 완성해 줄 2024 F/W 필수 아이템
- 26_NUMBER 5, FOREVER 사별의 영원히 빛나는 숫자 5. 가브리엘 샤넬이 가장 사랑



24



매종 피아제가 창립 150주년을 기념해 하이 주얼리 워치 컬렉션을 선보인다. 컬렉션명은 'Essence of Extraleganza'로 훌륭한 워치 메이커이자 주얼리 매종인 피아제의 우아하고도 화려한 빛의 정수를 담았다. 11월 말에는 이를 기념해 서울에서 하이 주얼리 전시인 <Essence of Extraleganza>도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1668-1874

stylechosun.co.kr
instagram.com/stylechosun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kr



18



30

- 했던 행운의 숫자로 샤넬 하우스 내 어디에서든 새롭게 재해석되며 아름다운 창조를 이어간다. 샤넬 화인 주얼리 크리에이션 스튜디오에서 숫자 5의 골목길 실루엣을 따라 완성한 독보적인 N°5 컬렉션을 선보인다.
- 30_THE COAT 당신의 겨울 옷장을 업그레이드해줄 2024 뉴 코트 셀렉션
- 38_A JOURNEY OF SPANISH OPULENCE 건축과 문화유산에 대한 특별한 존경심을 갖고 있는 루이 비통이 2025년 크루즈 패션쇼 장소로 선택한 곳은 바르셀로나였다.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건축물인 구엘 공원에서 열린 크루즈 패션쇼는 무궁무진한 스페인의 열정과 1980년대 향수에 대한 오마주로 가득 차 있었다.
- 40_AUTUMN IMPRESSION 그 어느 때보다 깊고 그윽하게 온몸을 감싸 안는 아늑한 늦 가을의 향.
- 41_READY FOR WINTER 가을, 겨울 패션에서 보온성과 스타일리시함 모두 놓치고 싶지 않은 여성들을 위한 셀렉션.
- 42_BROWN VS BLACK F/W 시즌 워드르브를 완성할 브라운 vs 블랙 컬러 백. 당신의 선택은?
- 44_BLOOMING IN MAYFAIR 문화 예술 애호가에게 최상의 접근성을 선사하는 위치로 꼽히는 메이페어에 문을 연 만다린 오리엔탈 메이페어를 소개한다.
- 45_BEST CHOICE 사적인 공간에 나만의 취향을 반영해줄 독특한 홈 데코레이션 리스트.
- 46_EDITOR'S PICK 헤어부터 보디까지 건강하고 탄력 넘치는 피부 간디션을 선사할 뷰티 리스트.

Style 조선일보

대표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김유미 ymkim@chosun.com 아트+컬처 디렉터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에디터 성정민 sjm@chosun.com 윤자경 yjk@chosun.com 디지털 에디터 신정민 sj@chosun.com
 디자인 나스컴퍼니 교열 이정현 수정 박민정 광고-마케팅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정희 ji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제작 김현기 hgkim@chosun.com 재무 노연경 분해-제판 덕일 인쇄 테라티피에스
 기사 및 광고 문의 02-749-5665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러울 비즈니스센터 11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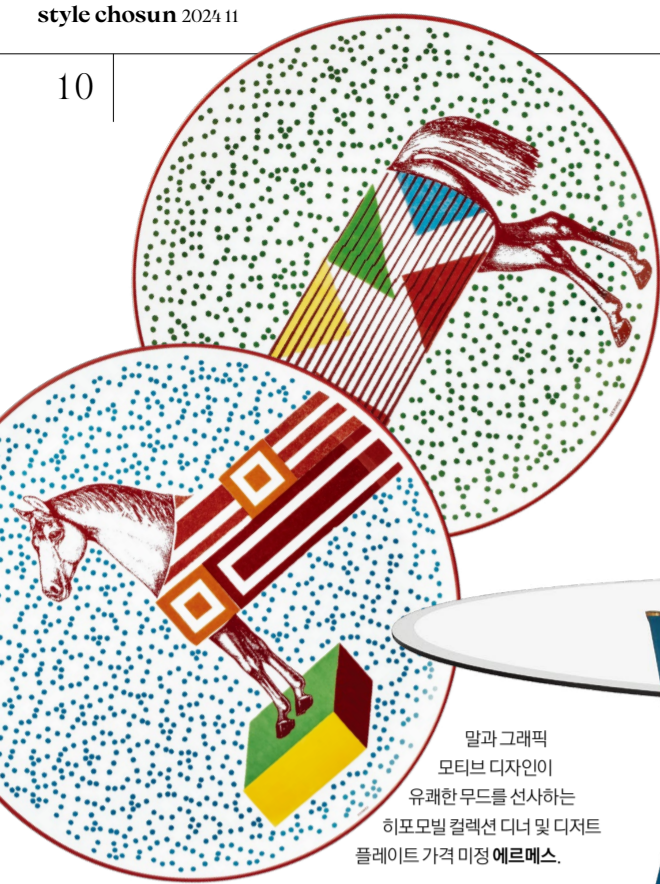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12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격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TIME CHANGES PACE



HERMÈS CUT.
DOWN TO THE LAST DETAIL



헤링본 패턴이 클래식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크리스탈 소재의 레미 디캔터 34만원 **할프 로렌 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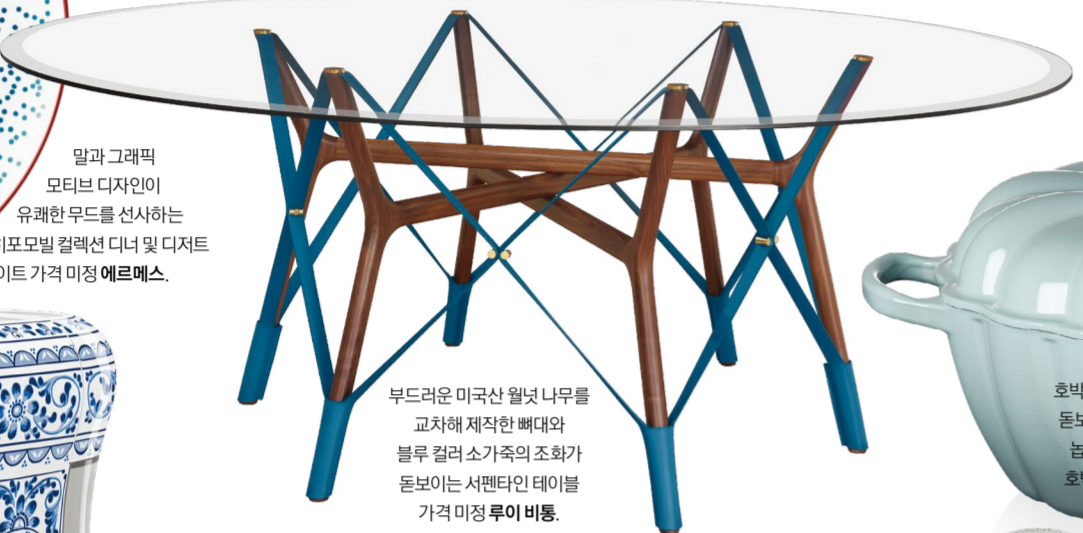


F 오릭은 장아와 문도 컬러 메탈 장식 뚜껑으로 하우스의 미학을 담아낸 펜디 오릭 바킷 5백만원대 **펜디**.



에디터 용서강

주방에 두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오브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과일도 간편하게 스퀴질할 수 있는 PSJS 주시 살리프 시트리스 스퀴저 실버 18만7천원 **알레시**.



말과 그래픽 모티브 디자인이 유쾌한 무드를 선사하는 히포모빌 컬렉션 디너 및 디지털 플레이트 가격 미정 **에르메스**.

부드러운 미국산 월넛 나무를 교차해 제작한 배대와 블루 컬러 소가죽의 조화가 돋보이는 서펜타인 테이블 가격 미정 **루이 비통**.



호박 모티브의 부드럽고 입체적인 곡선이 돋보이며, 수작업으로 완성한 무광 실버 눈으로 호박 줄기를 표현한 시그너처 호박 캐서를 시슬트 68만원 **르 크루제**.



진한 블루와 화이트 색조가 어우러진 마율리카 프린트 장식으로 완성한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 가격 미정 **스메그 x 들체엔가바나**.

Selection

고급스러운 디자인은 물론 실용성까지 겸비한 럭셔리 키친 가구와 가전 컬렉션.



펜디 스포트 모티브를 가미해 귀여움을 자아내는 기트피에 베이비 커블러리 세트 30만 원대 **까르띠에**.



패린 스트라이프 모티브와 앞면의 골드 컬러 메트로 로고가 특징인 인레이 우드 소재의 펜디 오릭 바킷 1천2백만원대 **펜디**.



측면에 핸들을 갖추어 손쉽게 휴대할 수 있는 미디어업 워커 바스켓 가격 미정 **로로 피아나**.



아날로그 디자인에 귀여운 컬러를 입은 A09 키친 타이머 블루 7만9천원 **알레시**.



강렬한 컬러감과 수직 크리스탈 커팅의 조화가 돋보이는 하모니 텀블러 95만원 **바카라**.



고급스러운 컬러감이 돋보이며, 1명의 장인이 80% 이상 수작업으로 완성한 전기 오븐 레인지 가격 미정 **라장슈**.



6단계 필터를 하나로 합친 '유피'와 필터도 99.9% 완벽한 정수와 설탕 필터 교체 가능한 W형 온정수기 비버드 델로 1백45만 원 **바다프렌드**.



시그너처 라인만의 온도, 진동, 습도 케어 시스템으로 최상의 환경에서 와인을 보관할 수 있는 시그너처 와인 셀러 가격 미정 **LG**.

알레시 02-6299-5684 **할프 로렌 홈** 02-6004-0221 **르 크루제** 0800-344-4841 **펜디** 02-544-1925 **LG** 02-3777-1114
까르띠에 1877-4326 **라장슈** 02-3445-0288 **로로 피아나** 02-6200-7799 **들체엔가바나** 02-3442-6888
바다프렌드 02-3448-8980 **루이 비통** 02-3432-1854 **에르메스** 02-542-6622 **바카라** 02-3448-3778



DUAL REPAIR LIFT CREAM

에이피 듀얼 리페어 리프트 크림



Dual Repair Lift Cream
Crème Double Lift Réparatrice

리프팅 특수 케어 2X 시너지

리프팅 2주 전	리프팅 24시간 후	리프팅 4주 후
+42% ¹ 피부 밀도	+202% ² 손상 회복	+213% ³ 피부 탄력

ap-beauty.com



영원한 아이콘

올해는 메종 피아제가 창립된 지 무려 1백50년이 되는 해다. 이를 기념해 가장 아이코닉한 주얼리 컬렉션인 포제션 컬렉션에 다양한 창립 150주년 기념 제품을 선보인다. 특히 포제션 링은 피아제에서 가장 사랑받는 제품으로 회전하는 모티브를 담아 경쾌함을 표현한다. 3백98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볼륨감과 화려함을 극대화한 버전부터 25개의 사파이어와 2개의 루비, 6개의 차보라이트 등 다채로운 젤스톤을 더해 컬러가 주는 유쾌함을 한층 더 끌어올린 제품까지, 더욱 특별해진 모습의 포제션 링을 만나 보자. 문의 1668-1874

COLOR IN MOTION



손목에 화려함을 더해줄 컬러 다이얼 워치 4. (위부터 차례대로) 오메가 드 빌 프레스티지 41MM 우아한 분위기를 뽐내듯 어두운 레드 다이얼에 버건디 컬러의 가죽 소재 스트랩으로 완성했다. 7백40만원대. 문의 02-6905-3301 제니사 크로노마스터 스포츠 핑크 유방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5백 퍼스 한정판으로 선보인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스틸 브레이슬릿에 핑크 컬러 선이 패턴으로 완성한 다이얼을 배치했다. 1천8백43만원. 문의 02-3479-1805 불가리 불가리 알루미늄 크로노그래프 스메랄도 푸른 바다의 색상에서 영감을 받아 화이트에서 에메랄드 그린 컬러로 이어지는 다이얼의 그라데이션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7백15만원. 문의 02-6105-2120 피네타이 샵머저를 퀴란타파트로 루나 로사 타-세라미테크™ 44MM 클래식한 블루 컬러 다이얼과 루나 로사 레이싱 보트의 소재가 연상되는 스트랩이 특징이다. 2천1백만원대. 문의 1670-1936 포토그래퍼 오현상 에디터 신정임

My Dream Bag

꿈은 직선 라인과 절제된 디테일을 통해 우아함을 드러내는 에르메스의 켈리 백은 그 자체로 스타일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다. 40 사이즈부터 미니 사이즈까지 선보이며 다채롭고 대담하게 변화하는 여성성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숙련된 1명의 장인이 켈리 백을 구성하는 여러 가죽 조각과 다양한 금속 장식을 꿰매고, 정착하고, 조립하는 데 수십 시간이 걸리며, 각 가방은 '1인 1가방' 방식으로 작업대에서 1명의 장인에 의해 처음부터 끝까지 조립된다. 이렇듯 명실상부한 에르메스의 장인 정신과 최고의 바느질, 스카이빙(skinning, 가죽 켜기), 재단, 그리고 가죽이 만나 하나의 가방이 탄생한다. 고급스러운 골드 컬러를 입은 앙가죽 소재의 미니 켈리 백은 포멀한 룩에는 세련된 포인트가 되어주며, 캐주얼한 룩에는 패셔너블하고 럭셔리한 무드를 배가한다. 문의 02-542-6622



Brighten Up

동인의 시작은 아이 케어부터.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에스티 로더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아이 수퍼차지드 젤-크림 FR-디펜스™ 테크놀로지로 외부 환경에 의한 피부 손상을 막아주고 크로노록스™ 파워 시그널 테크놀로지를 적용해 눈가 피부를 탄력 있고 밝게 가꿔준다. 15ml 13만원대. 문의 02-6971-3212 샤넬 N°1 DE CHANEL 레드 까멜리아 아이 세럼 레드 까멜리아 추출물을 담아 눈가 피부의 장벽을 강화하고 로테이팅 앰플라게이트가 콜링 효과를 선사한다. 15ml 14만9천원, 리프트 12만6천원. 문의 080-805-9638, www.chanel.com 발몽 바이-리프트 아이 독자적인 성분인 C 드론과 리포솜 DNA-RNA 등이 들어 있어 피부 탄력을 높이고 콜라겐을 생성해 안티에이징 효과를 선사한다. 15ml 35만원. 문의 070-4352-5203 포토그래퍼 오현상 에디터 신정임

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FESTIVAL



지젤 비엔의 연출작 '사람들(Crowd)'

어수선한 파티장을 연상시키는 어두운 무대에 선 15명의 댄서. 차림새와 분위기를 통해 젠더, 직업, 사회 계급 등 현대 사회를 반영하는 다양한 캐릭터임을 상징하는 듯한 이들은 절제된 느낌으로 느린 움직임을 이어가는데, 그들의 호흡과 몸의 떨림, 감정선이 홀리우드처럼 변화하는 세밀한 흐름에 몰입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된다. 프랑스계 오스트리아 인무가이자 예술가 지젤 비엔(Gisèle Vienne) 감독의 '사람들(Crowd)'은 이렇듯 복잡다단한 인간 내면의 감정을 동화적인 일렉트로닉 음악과 함께하는 '몸의 철학'으로 풀어낸 강렬한 작품이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반클리프 아펠이 주도하는 문화 예술 이니셔티브인 댄스 리플렉션(Dance Reflections by Van Cleef & Arpels)을 통해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지젤 비엔의 역량을 보여주는 작품답게 올해로 24회를 맞이한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 폐막작으로 지난 10월 26일과 27일, 이틀간의 공연을 밀도 있게 마무리했다. 철학과 더불어 인형극을 공부하기도 한 지젤 비엔 감독은 여러 매체를 조합해 독특한 스타일의 댄스 퍼포먼스를 빚어냈으며, 이를 통해 인간 본능과 감정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다루면서 몸의 언어를 통한 지각과 힘의 관계성을 해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SPAF 폐막 공연 당시 아티스트 토크에 참석한 지젤 비엔 감독은 자신의 안무를 인간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방법이라고 설명하면서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은 몸의 움직임은 인식의 폭을 확장해준다고 설명했다. 머리로 하는 사변적 철학이 때로 두통을 가져다주는 것과 달리 그녀가 직조하는 몸의 철학은 '다크한' 모드에서도 의외의 해방감을 선사한다. 마리오네트의 격렬한 버전 같은 댄서의 움직임이 근막을 활용하는 치료적 행위이기도 하다는 점도 신선하게 다가왔다. 내년에는 더 큰 축제가 찾아온다고, 글 고정연



Solidarity for Change

워블로가 전 국제 크리켓 선수이자 환경보호 활동가인 위블로 홍보대사 케빈 피터슨(Kevin Pieterse)이 만든 환경보호 단체 소라이(SORA)를 지원하는 의미로 특별한 리미티드 에디션 스피릿 오브 빙빙 투르비용 5 데이즈 파워 리저브 소라이 30점을 선보인다. 벌써 네 번째 컬래버레이션으로,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코볼소 보호를 위한 투쟁을 하는 환경보호 단체에 기부된다. 현재 코볼소는 심각한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 리미티드 에디션 위치는 42mm 케이스에 코볼소 피부의 독특한 컬러를 구현한 따뜻한 그레이 컬러의 세라믹으로 제작했다. 핸드 와인딩 스키텔론 투르비용을 장착해 남성적인 매력을 선사한다. 문의 02-540-1356

SOPHISTICATED POINT



Glam Elegance

포멀라토만이 표현할 수 있는 깔끔한 라인과 매끈한 조각 같은 형태가 특징이며, 장인들의 흔들림 없는 헌신을 느낄 수 있는 이코니카 컬렉션. 이번 가을, 이러한 컬렉션의 헤리티지를 잇는 새로운 뉴 이코니카 컬렉션이 출시됐다. 슬러하면서 모던한 형태감으로 시대를 초월한 고유의 우아함과 여유로운 스타일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밀라노의 주얼리와 금세공의 정수를 만나볼 수 있다. 여성스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자아내는 18K 로즈 골드에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섬세하게 세팅한 네크리스는 절제된 고급스러움을 발산한다. 문의 02-3143-9486

Luxe Night

불규칙한 생활 패턴과 낮은 수면의 질로 지쳐버린 현대인들의 피부 회복을 위한 솔루션, 에이피뷰티(AP Beauty) 프라임 리저브 리트리티 나이트 엘릭시어를 소개한다. 브랜드 하이엔드 라인인 리저브에서 새롭게 선보인 오버나이트 마스크 제품으로 밤사이 리페어-리버스-리저브, 3단계 변화를 촉진해 피부 탄력 회복을 돕고 영양을 더해준다. 특히 핵심 성분인 '플라보노이드 228K™'를 담아 세라마이드의 장벽 강화 효과보다 8.7배, 펩타이드의 탄력 효과보다 1.6배, 레티놀 유도체의 항산화 효과보다 50배 높은 효과를 선사하는 것이 특징. 그뿐 아니라 골드와 다이아몬드 성분으로 자연스러운 피부 광채와 윤기를 부여한다. 총 8개 구성으로 매주 하나씩 두 달 동안 사용해 피부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6.5ml×8개 75만원. 문의 080-023-5454

패션의 완성, 벨트 3. (위부터 차례대로) 2024 F/W 시즌을 맞이해 선보인 골드 컬러의 각진 더블 G 버클이 유니크한 스타일을 연출해주는 블랙 레더 소재의 가죽 미ջ 구피. 문의 02-3452-1921.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스웨이드 소재로 안쪽에 블랙 컬러 레더를 더해 양면으로 착용 가능하며 무드에 따라 코디할 수 있는 브라운 컬러 T타일리스 벨트 46만원대 토츠. 문의 02-3448-8233. 다크 실버 컬러가 세련되고 도시적인 매력을 선사하며 버클 아래 푸시 스타트 잠금장치가 있어 손쉽게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DG 로고 디테일의 벨트 가죽 미ջ 뿔레엔가버나. 문의 02-3442-6888 포토그래퍼 오현상 인턴 에디터 김보민



여행의 동반자

소중한 짐을 지켜줄 리모와 하이브리드 라인에 라일라 컬러가 추가되었다. 캐빈과 체크인 L, 두 가지 사이즈로 출시했으며 밝은 라벤더와 은은한 핑크가 어우러진 연보라색으로 산뜻하면서 클래식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번 신제품 역시 폴리카보네이트와 알루미늄을 사용해 가벼운 무게와 튼튼한 내구성을 자랑하며 끊김이 없어 기동성이 우수한 텔레스코픽 핸들, 안정적인 무빙을 선사하는 리모와 멀티힐 시스템, TSA 승인 잠금장치를 적용해 리모와의 우수한 엔지니어링 기술을 엿볼 수 있다. 한편 내부에는 짐을 압축해 수납할 수 있는 2개의 플렉스 디바이더를 더한 공간도 있어 짐이 많아 부담스러운 여행객에게 제격이다. 문의 rimowa.com

Art Basel Paris 2024

브랜드 파워를 내세운 경쟁 속 다양성의 꿈틀거림

‘아트 바젤(Art Basel)’이란 브랜드가 유럽 문화 예술의 메카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메트로폴리스인 파리에 자리한 지도 벌써 3년째다. 2022년 피악(FIAC)이라는 파리 태생의 전통 깊은 아트 페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세계적인 아트 페어 브랜드인 아트 바젤이 안방을 차지하면서 대대적인 주목을 받았다. 기나긴 팬데믹의 장막이 걷히는 와중에 미술 시장이 호조세를 보인 데다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도시에 활기가 감돈 덕분이었다. 어쩌면 관심이 살짜 시들해질 법도 할 시기지만 올해는 예외였다. 아무래도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거친 그랑 팔레에서 펼쳐지는 첫 아트 바젤 파리가 때문일까. 그동안 수많은 전시, 패션쇼, 축제 등이 열린 역사적인 행사의 장인 그랑 팔레는 이제 상당수 한국인들에게 적어도 ‘이미지’로는 낯설지 않은 공간이 된 것 같다. 지난여름 파리 올림픽에서 근사한 경기와 값진 메달로 기분 좋게 각인된 펜싱 경기의 무대였기 때문이다. 유난한 열기 덕분인지 프리뷰 첫날 날씨가 뜨거울 한여름을 방불케 했던 2024 아트 바젤 파리 현장(10월 16~20일)을 다녀왔다.



브랜드 파워와 글로벌화 흐름에서 뒤진 피악(FIAC)을 기억하며

‘브랜드’ 미학의 관점에서 스위스 태생의 ‘아트 바젤(Art Basel)’이라는 전통과 명성, 실력을 고루 갖춘 아트 페어를 좋아하는 편이지만 사실 ‘아트 바젤 파리’의 등장만큼은 마냥 반기기에 는 약간의 미묘한 마음이 깔려 있었던 것 같다. 그저 혼자만의 일방적인 인연이기는 해도 필자가 평생 처음으로 마주한 아트 페어가 바로 피악(FIAC)이어서다. 미술에 관심이 있었지만 ‘업’으로 대하지는 않았던 시절, 그저 우연히 파리에 갔다가 경험한 피악은 신선한 자극으로 다가왔다. 대개 건조하기 짝이 없는 컨벤션 센터에서 벌어지는 온갖 페어와 달리 그랑 팔레라는 출중한 플랫폼을 두고 있었고, 이를 무대로 다양한 갤러리들이 우아하게 펼쳐는 현대미술의 향연은 초보자의 오감을 들뜨게 하기에 충분했다. 당시 반세기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피악에서 알록달록한 우리나라 보자기처럼 보

이는 작품 하나가 묘한 오라를 발산하는 모습이 일종의 신선한 자극으로 외닿은 순간도 있었다. 바로 김수자의 유명한 작품 ‘보마리’였다. 그래서 세계 최강 아트 페어 브랜드인 아트 바젤의 모기업 스위스 MCH 그룹이 한때 3대 페어였던 피악을 대신해 파리에 입성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살짝 씁쓸하기도 했다. 타지인의 마음도 어려웠을진대, 파리지역의 자존심을 건드리기 조심스러웠던지 이 새로운 페어는 파리 플러스 파 아트 바젤(Paris + par Art Basel)’이라는 어수선한 이름을 달고 2022년 10월 팬데믹의 빗장이 확연히 풀린 좋은 계절에 첫선을 보였다. 당시에는 보수에 들어가면서 임시 장소(그랑 팔레 에페 메르)를 쓰기는 했지만 어차피 피악처럼 그랑 팔레를 무대로 펼쳐지게 될 텐데 뭐 그리 다르려나 싶기도 했고, 파리가 마케팅력에서 뒤지는 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트 페어 분야 최강자로서의 브랜드 파워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차별성을 이끌어낼지도 모르겠다는 양가감정이 섞인



1 2024 아트 바젤 파리(10월 16~20일)가 펼쳐진 그랑 팔레(Grand Palais) 외관. 유난한 열기 덕분인지 프리뷰 첫날은 날씨가 뜨거울 한여름을 방불케 했다. 2 아트 바젤 파리의 전시장 풍경. 올해는 42개국 1백95개 갤러리가 참가하고, 방문객 수는 6만5천 명 규모를 기록했다. 3 3년 연속 아트 바젤 파리의 공식 파트너로 참여한 루이 비통은 피어장(그랑 팔레 발코노노르)에서 브랜드와 깊은 인연을 이어온 건축가 프랭크 게리(Frank Gehry) 특별전을 열었다. 이미지 제공 루이 비통 4 아트 바젤 파리 2024 국제갤러리 부스 설치 모습. 한국 갤러리로는 단독으로 메인 부문인 ‘갤러리즈’ 섹터에 참가했다. 사진 Sebastian Pellion of Persano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재 멀리서 지켜왔다. 잘 알려졌다고 마침 글로벌 미술 시장이 전반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기도 했고, 소위 ‘개장 효과’도 있기에 첫 페어는 떠들썩하게, 꽤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그보다 좀 앞선 같은 해 9월 초 프리즈 서울이 뜨거울 관심을 받으며 마무리된 것처럼 말이다.

‘아트 바젤 파리’로 바뀐 공식 명칭으로 그랑 팔레에 돌아오다

작금의 시장 여건은 달라졌다. 아트 이코노믹스(Arts Economics)가 아트 바젤, UBS와 함께 발간하는 미술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미술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4% 줄어든 6백50억 달러를 기록하며 3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정학적, 거시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 팽배한 상황에서 이 정도의 하락세라면 ‘나쁘지 않다’는 반응도 많이 나왔다. 얼마 전 새로 발표된 UBS 리포트를 보자

면 ‘고액 순자산가(HNW)’로 일컬어지는 부유층 미술 수집가들은 씀씀이를 줄이기는 했지만 컬렉터의 세대교체가 이뤄지는 가운데 고가 작품에 대한 수요가 줄었을 뿐 중위값(median) 기준으로 보면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새로운 갤러리와 거래할 의향이 상당히 크다는 결과도 눈길을 끈다. 예컨대 2019년에는 연간 13개 갤러리에서 작품을 구매한 데 반해 2024년(상반기 말 집계 기준)에는 17개의 거래처를 뒀으며, 이들이 작품 구매를 단행한 갤러리들 중 70%가 고객이 속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에는 50%에 불과했다). 또 아트 페어를 비롯해 각종 경매, 예술 축제 등 아트 행사의 최근 동향을 보자면 팬데믹 이후 지역화, 디지털화, 현상이 눈에 띄는 가운데, 그나마 파리가 가장 글로벌한 관심을 받는 도시라는 대목도 시선을 끈다. 실제로 10월 초 런던에서 동시에 열린 프리즈 런던과 마스터즈는 관객 수 자체는 더 많았지만(9만 명) 사람들은 그다음 주에 열릴 ‘파리’의 아트 페어 얘기로 더 화제의 꽃을 피우는 느낌이 들었다. 올가을 런던에서 유난히 한국 작가들의 팔팔한 전시가 나란히 이어져(헤이워드 갤러리에서 대대적인 개인전을 가진 양혜규 작가, 서펜타인 파빌리온의 조민석 건축가, 테이트 모던의 터빈 홀을 장식한 이매리 작가 등) 안 그래도 짧은 체류 기간에 페어를 충분히 못 봤다고 했더니, 현지 갤러리스트가 “어차피 파리에 갈 거냐”를 물어 “네”라고 대답을 던지기도 했다. 올해는 파리 올림픽이 열린 데다 드디어 말끔히 단장한 그랑 팔레로 복귀하는 첫 페어이기도 해 흥행 요소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도 지금껏 사람들이 불러온 데로 ‘아트 바젤(Art Basel) 파리’라는 공식 명칭으로 마침내 변절한 올해의 3회 차 페어는 덩치도 커졌고(2022년 30개국 1백56개 갤러리, 올해는 42개국 1백95개 갤러리) 방문객 수도 6만5천 명 정도로 증가했으며(2022년 4만 명) 열기도 높았다. 프리즈 런던 이후에 비어 있던 캘린더를 인근 남쪽 나라 섬에서 채운 필자는 개막 프리뷰 기간에 맞춰 바쁘게 파리에 도착한 당일 대부분의 짐이 담긴 수트케이스가 미처 오지 않아 민소매 티를 입고 페어장에 갔는데, 불행 중 다행인지 이례적으로 더운 날씨와 그랑 팔레의 유리 천장으로 쏟아지는 햇빛, 그리고 과연 VIP 프리뷰가 맞는지 의왕할 정도로 북적대는 인파 덕분에(?) 오히려 땀을 흘려야만 했다.

5 치발발라 셀프(Tschabalala Self) 작가를 위한 솔로 부스 ‘MY HOUSE’. 갤러리 에바 프레젠후버(Galerie Eva Presenhuber) 부스다. 6 사카고(미국), 파리(프랑스), 멕시코시티에 전시 공간을 둔 마리안 이브라힘(Mariane Ibrahim) 갤러리 부스 모습. Courtesy Art Basel 7 꽃집처럼 부스를 꾸미고 꽃을 표현한 작품을 선보인 멕시코 갤러리 레이버(Labor). Courtesy Art Basel * 1, 2, 5 Photo by 고성연 8 아트 바젤 파리의 퍼블릭 프로그램으로 팔레-루아알에 설치된 가다 아메르(Ghada Amer)의 조각 작품. 9 올해 처음으로 퍼블릭 프로그램 후원 기업으로 나서기도 한 미우미우의 특별 프로젝트 키 비주얼. Courtesy Miu Miu 10 프랑스 경제사회환경위원회의 일부이자 미우미우 런웨이 쇼 장소이기도 한 팔레 디에나에서 특별 프로젝트인 ‘Tales & Tellers’를 선보였는데(10월 16~20일), 아티스트 고시카 마추카(Goshka Macuga)가 구상하고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MACBA) 관장 엘비라 디양가니 오세(Elvira Dyangani Ose)가 기획을 맡은 행사다. 여성이 자신의 이야기를 주제적으로 풀어놓는 미우미우의 단편영화 ‘우먼스 테일’ 시리즈 등에 등장한 여러 캐릭터가 실제로 나와 퍼포먼스를 펼쳤다. Courtesy Miu Miu 11 아트 바젤 파리의 퍼블릭 프로그램으로 프랑스 학술원에 전시된 나키 드 생팔(Niki de Saint Phalle) 작품. 12 파리 파카소 미술관에서는 미국 추상회화 거장 잭슨 폴록을 기리는 회고전을 선보였다. Photo by 고성연 13 파리 시내에 있는 스위스 메가 갤러리 하우스저앤워스 파리에서는 라시드 존슨 개인전을 열었다. Installation view, ‘Rashid Johnson. Anima,’ Hauser & Wirth Paris, 2024 © Rashid Johnson. Courtesy the artist and Hauser & Wirth. Photo by Nicolas Brasseur * 8, 11, 13 Courtesy Art Basel



한층 다채롭게 느껴지는 구성의 스펙트럼과 활기

누군가 ‘파리는 늘 좋은 아이디어다’라는 문장을 넣은 기사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던 기억이 있다. 20세기 후반 뉴욕에 ‘아트’의 메카 자리를 내주긴 했지만 프랑스 국적의 슈퍼 컬렉터들이 이 분야에 전문학적 투자를 쏟아부었고, 대중적인 시장도 뒷받침되는 메트로폴리스. 게다가 럭셔리 브랜드들의 메카와도 같은 파리가 미술계의 막강 페어 브랜드를 만났을 때 이루어내는 시너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프리뷰 첫날 초반에는 덥고 피곤하지만 했지만 올해 처음으로 아트 바젤 파리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고 밀크티와 딤섬을 즐길 수 있는 ‘차찬텡(Cha Chaan Teng)’ 카페 라운지를 페어장에 차린 홍콩관광청(HKTB)의 밀크티가 급세 동안 길 보고는 살짝 허탈한 마음에 2층 전시 공간을 돌아보노라니 그 차별성의 역학이 피부로 느껴졌다. ‘아트 바젤 파리’에 가고시안, 하우스저앤워스, 데이비드 즈위너, 페이스, 스푸르스 마커스 같은 경쟁한 갤러리들이 메인 섹터(갤러리즈) 부스를 차리는 건 당연한 풍경이지만 국가나 도시명만 봐

도 호기심이 돋는 리스본, 케이프타운, 마르파, 멕시코시티, 제다(Jeddah), 랑저우 등이 메인 섹터와 주로 신흥 갤러리 위주인 ‘이머전스 섹터’, 그리고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하지만 강력한 매력을 지닌 작업이나 흐름을 조명하고자 올해 처음 마련된 ‘프리미스 섹터’ 등에 전망적으로 포진한 모습이 꽤 경쾌하게 다가왔다. 발레복을 입은 여성이 퍼포먼스를 하는 동선을 따라가는 포토그래퍼의 역동적인 움직임이 펼쳐지는 비엔나의 갤러리, 꽃을 형상화한 네온 작품을 전시한 부스를 꽃집처럼 꾸민 멕시코 갤러리, 철제 캐비닛을 두른 것 같은 부스 디자인을 택한 프랑스 갤러리 등이 다채로운 이미지로 섞이는 식으로 말이다. 그랑 팔레 특유의 녹색 철제 기둥을 가까이 둔,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턱이 높은 부스에서 다국적 작가의 작품을 선보인 말라노의 갤러리를 필두로 요즘 아트 신이 부쩍 활기를 띠는 이 도시의 행보가 더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기도 한다. 2~3년 뒤 아트 바젤 파리 진출을 염두에 둔 스페인 갤러리 스트 친구는 “피악의 퇴출이 아쉽기도 하지만 확실히 아트 바젤의 전략적 경영과 브랜드 파워





가 다르긴 하다'라고 말했다. 전시된 적이 별로 없는 종이 작품이나 기발한 오브제 같은 작품들이 35개 부스 공간에 걸쳐 재기 발랄하게 전시되는 '오 라라!(Oh La La!)' 같은 새로운 프로젝트, 바젤(스위스) 페어에 이어 파리에서 두 번째로 선보이는 '아트 바젤 쇼(작가와 협업해 발간한 책이라든지 엽서, 아트 토이 등을 파는 매장)' 등도 재미와 실속을 겸비한 영리한 마케팅 전략이다.

‘아트 마케팅’에 진심인 럭셔리 브랜드들

‘마케팅’ 관점에서 보자면 단연 시선을 사로잡는 건 역시 럭셔리 브랜드들의 열띤 행보다. 파리에서 브랜드들의 ‘아케팅’ 행보를 따라가자면 꼬박 며칠이 걸린다. 그도 그럴 것이 VIP 고객을 대상으로 아트 페어와 협업을 맺는 브랜드의 전략적 마케팅뿐만 아니라 웅변한 글로비 미술관을 무색하게 할 정도의 컬렉션과 기획력을 내세워 ‘블록버스터’ 전시나 창의적인 행사를 선보이기 때문이다. 파리 올림피아에서도 기세가 남달랐던 루이 비통은 아트 바젤 파리에서도 존재감을 과시했다. 3년 연속 아트 바젤 파리의 공식 파트너로 참여한 루이 비통은 페어장(그랑 팔레 발롱 도노르)에서 브랜드와 깊은 인연을 이어온 건축가 프랭크 게리(Frank Gehry)의 특별전을 열었다. 그랑 팔레의 웅장한 계단 위를 떠다니는 듯한 자태의 커다란 물고기 조각은 그의 건축적 비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요소다. 이와 별개로 페어장 바깥에서 펼쳐진 ‘장외’ 행사는 문화 예술 향유자들의 눈길을 더 끌었음지도 모르겠다.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파리 16구의 루이 비통 재단미술관에서는 개관 10주년을 맞이해 팝아트를 주제로 한 대형 전시 <팝 포에버, 톰 웨슬만 & ...>(Pop Forever, Tom

Wesselmann & ...)을 선보였다. 루이 비통은 10월 아트 주간 행사로 열린 2024 디자인 마이애미 파리에서 자사의 ‘오브제 노마드’ 컬렉션에서 가장 상징적인 작품들을 빛내온 스튜디오 캄파나와의 협업을 기념하는 전시를 LV 드림(LV Dream) 공간에서 열기도 했다. ‘캄파나 형제로 알려졌던 듀오 중 형인 움베르토 캄파나가 지난 2022년 작고한 페르난도 캄파나와의 추억을 돌아보는 영화를 직접 소개한 ‘아티스트 토크’도 인상적이었다. 루이 비통을 거느린 LVMH 그룹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도 더불어 럭셔리업계의 양대 산맥이자 둘째 가라면 서러울 예술계 큰손이기도 한 프랑수아 피노 회장의 현대미술품 컬렉션(‘피노 컬렉션’)도 빼놓을 수 없다. 도심(1구) 레알 지역의 역사적 기념물인 옛 상업거래소(Bourse de Commerce)의 인상적인 돔형 건축물을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피노 컬렉션은 이번에도 1960년대 국제 무대에 등장한 이탈리아 예술운동 ‘아르테 포베라’를 내세운 기획전을 공개했다(10월 9일부터 2025년 1월 20일까지). ‘기난한 예술, ‘빈자의 예술’이라는 뜻처럼 일부러 ‘보잘것없는’ 재료를 활용한 전위적인 예술운동이다.

올해 아트 바젤 파리의 퍼블릭 프로그램 공식 파트너로서 처음 나선 미우미우(Miu Miu)의 행보도 흥미로웠다. 프랑스 경제사회환경위원회의 본부이자 미우미우 런웨이 쇼 장소이기도 한 팔레 디에나에서 특별 프로젝트인 ‘Tales & Tellers’를 선보였는데(10월 16~20일), 아티스트 고시가 마추가(Goshka Macuga)가 구상하고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MACBA) 관장 엘비라 디앙가니 오세(Elvira Dyangani Ose)가 기획을 맡은 행사다. 여성이 자신의 이야기를 주제적으로 풀어나가는 미우미우의 단편영화(우먼스 테일) 시

1 루이 비통인 아트 바젤 파리 기간에 열린 2024 디자인 마이애미 파리의 공식 파트너로서 LV 드림(LV Dream) 공간에서 스튜디오 캄파나의 작업을 기념하기 위한 전시를 열었다. 이미지 제공_루이 비통 **2** 옛 상업거래소(Bourse de Commerce)의 인상적인 돔형 건축물을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피노 컬렉션은 1960년대 이탈리아 예술운동 ‘아르테 포베라’를 내세운 기획전을 공개했다. 사진은 전시 풍경. **3, 4**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루이 비통 재단미술관에서는 개관 10주년을 맞이해 팝아트를 주제로 한 <팝 포에버, 톰 웨슬만 & ...>(Pop Forever, Tom Wesselmann & ...)을 선보였다. Photo by 고성연 **5** 개르피에 현대미술재단(파리 14구)에서는 올가 아마랄(Olga de Amaral) 회고전이 펼쳐지고 있다. **6** 개르피에 현대미술재단은 설립 40주년을 맞아 팔레-루아얄 광장에 새로운 전시 공간을 탄생시킨다. 내년 말 공개할 예정이다. 사진은 앞으로 개르피에 현대미술재단의 부지가 될 건물 전망장에 설치된 작품의 모습. © Martin Argyroglo **※** 2~5 Photo by 고성연

리즈 등에 등장한 여러 캐릭터가 실제로 나와 퍼포먼스를 펼쳐서 패션과 여성, 예술을 창의적으로 버무려내는 경험을 선사했다. 또 2011년 시작된 ‘우먼스 테일’ 시리즈를 계기로 여성성, 허영심, 여성의 시선이라는 주제를 재치 있고도 나름 진지한 자세로 다뤄온 브랜드답게 이번 아트 바젤 파리 기간에 다양한 감독과 예술가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대담 시리즈도 진행했는데, 우리나라 예술가로는 정금형, 김소영이 참여했다. 파리발 베세나의 원조로 여겨지는 까르피에 현대미술재단(파리 14구)에서는 아마도 큰 호평을 얻은 전시가 아닐까 싶은 콜롬비아의 예술가 올가 아마랄(Olga de Amaral)의 창작 세계를 담아낸 회고전이 펼쳐지고 있다(2025년 3월 16일까지). 섬유를 예술적으로 풀어내는 ‘텍스타일 미학’의 정점을 보여주는 전시로 파리에 들른다면 꼭 발품 팔기를 권하고 싶은 추천 목록 중 하나다.

까르피에 현대미술재단은 설립 40주년을 맞아 도심의 유서 깊은 팔레-루아얄 광장(Place du Palais-Royal)에 새로운 전시 공간을 탄생시킬 예정이다. 현재 전시 공간에 이어 다시금 세계적인 건축가 장 누벨(Jean Nouvel)과 손잡았는데, 전시 공간만 6,500㎡(약 1천9백70평)에 이르는 이 새로운 미술관은 1,200㎡(약 3백63평) 면적의 이동식 플랫폼 5개가 포함되어 건물의 표면적과 이동 방식에 변화를 줄 수 있고, 이 플랫폼을 활용해 높이가 최대 11m에 달하는 여러 층의 수직 공간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한다. 이번 아트 바젤 파리 기간에 내년 말께 문을 열 새 공간의 내부를 공개하는 VIP 프리뷰 세션을 갖기도 했다. 이처럼 브랜드들의 불꽃 튀는 ‘아트 마케팅’ 경쟁은 파리의 문화 예술 산책을 갈수록 더 바쁘게 만들고 있다. 글 **고성연**



거장의 창조혼과 첨단 기술의 유기적 연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현 인류에게 ‘예술과 기술의 동맹’이라는 문구는 그리 신선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예술에 첨단 기술은 요긴한 도구이며, 때로는 창조성을 북돋는 영감의 원천이나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예술가에게는 두말할 것도 없을 테고 말이다. 기술이 진화하는 속도가 무섭도록 빨라졌기에 그 흐름을 이어가는 주체(기업), 그리고 창조혼을 불사르는 주체(예술가)가 만나 시너지를 내는 협업은 단지 ‘아트 마케팅’으로만 치부하기에는 꽤 의미 깊은 조합이 될 수 있다. 노동의 분화와 서로를 채워줄 수 있는 상호 보완성에 바탕을 둔 ‘유기적 연대’를 떠올리게 하는 면모가 엿보여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에 이어 글로벌 아트 페어 프리즈 런던(Frieze London)에서도 협업의 미학을 펼친 LG 올레드 아트(LG OLED ART)와 영국 영화감독이자 예술가 존 아콤폴라(John Akomfrah)의 만남은 창조적 연대의 훌륭한 사례가 아닐까 싶다.



예술이라는 키워드 앞에서 기술은 그저 ‘귀한 알맹이’를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식의 비유를 당연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족한 내용이 빠져난 형식의 틀 안에서 빛을 발하는 경우도 있고, 프레임의 변화가 콘텐츠의 결을 바꾸거나 아예 새롭게 빛내는 경우도 분명 존재한다. 불세출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약 필요했다고 전해지는데, 당시 새롭게 등장한 발명품인 타자기를 사용하면서 그의 문체가 바뀌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원래는 만연체였는데 다른 도구를 쓰면서 보다 간결하고 힘 있는 문체를 구사하게 됐다고 하기도 하고, 본인의 스타일을 잃어 좀 안타깝게 여기기도 한다. 우리는 전·후자의 우위를 알 수 없을 테지만, 적어도 니체는 타자기를 애지중지했다. ‘형식’과 ‘내용’의 관계를 둘러싼 오랜 철학적 담론은 차치하고,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 영국관을 대표하는 작가인 존 아콤폴라(John Akomfrah, b. 1957)도 도구의 중요성을 꿰뚫고 있는 예술가다. 다양한 장면과 기법을 버무려 영상을 만드는 ‘브리콜라주(bricolage)’의 대가인 그는 목적한 메시지를 담으면서도 서정미를 물씬 풍기는 섬세한 작품으로 ‘영상 시인’으로 불리는데, 대체로운 영역의 인재들과 꾸준히 협업을 펼치는 창조적 연대의 실천가이기도 하다. 영상을 다루는 만큼 그 플랫폼에 관심이 쏠리자 다국적 아티스트들과 손잡고 결실을 내은 LG 올레드 아트(LG OLED ART) 프로젝트를 우연히 접하고 먼저 관심을 보인 것도 아콤폴라 감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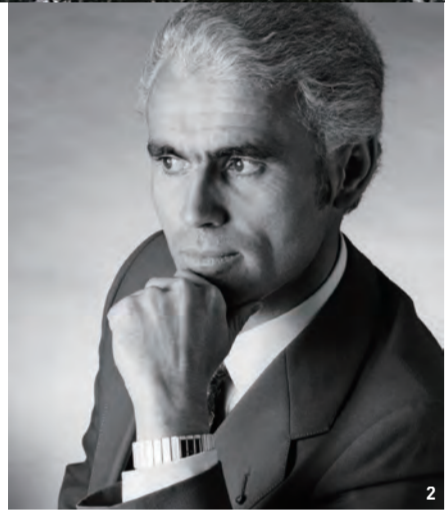
베니스에서의 협업이 프리즈 런던으로 이어진 인연 필자가 아콤폴라의 LG 올레드 협업 작품을 먼저 접한 건 지난달 9일 프리뷰 행사로 막을 올린 프리즈 런던 전시장에서다. 마크 로스코의 짙은 레드가 연상되는 강렬하면서도 차분하게 가려있는 단색조로 온통 수놓

은 LG 올레드 라운지에 들어서자 관람 인파로 넘실대던 벽 너머 바깥세상은 의외로 금세 잊어버리고 화면에 시선이 쏠린다. 은은하게 집중을 도와주는 전시 부스 디자인의 도움도 있지만 아마도 영상 자체의 힘이 크리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한 해변 백사장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여드름이 살짝 나 있는 소녀의 피부까지 자연스러운 생생함으로 담아낸 아콤폴라의 작품은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Becoming Wind(바람이 되어)’(2023)라는 5채널 영상 작업이다. 앞서 사르자 비엔날레에서 프로젝트 영상으로 앞서 사르자 비엔날레에서 일반 TV 모니터로 공개되었다가 프리즈 런던에서는 LG 올레드(OLED, 자기 발광다이오드) TV로 선보였다. 라운지에 걸린 5대의 커다란 TV는 알고 보니 세계 최대 올레드 TV라고(대각선 길이 245cm인 97형 ‘LG 올레드 에보(evo)’). 인간에게는 빠르게 움직이면서 되도록 작은 발자국을 남기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되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 인류가 지구에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하니, 어째서 그에게 ‘시인’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지 이해된다. 런던에 이은 짙은 베니스행에서 전시 흥수 속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 영국관 작가로 주목받은 아콤폴라의 작업을 우선순위로 목록에 올리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사실 아콤폴라는 자신의 분야에서 단단한 입지를 다진 예술가지만 그의 배경을 알면 국가관 대표 작가로 선정된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일지도 모르겠다. 아콤폴라는 아프리카 가나에서 일어난 쿠데타로 부친이 사망한 후 갓난희 목숨을 부지해 일곱 살에 영국으로 온 정치 난민 가정 출신이다. 낯선 땅에서도 차별을 겪던 그는 사회문제에 관심을 기울였고 이민자를 비롯해 차별을 둘러싼 이슈를 다루는데, 격렬한 구호를 외치기보다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모두의 영혼을 보듬는다. 베니스 전시도 5대륙에서 채집한 이미지를 아름답게 조합해 떠돌이들의 삶을 조명한다. 커다란 직사각형 스크린이 파사드를 인상 깊게 장식한 영국관 전시는 최초로 건물 뒤쪽으로 들어가도록 동선을 짰는데, 40대 가까운 올레드 TV 스크린에 선연하게 담긴 영상은 총 8개 공간에 걸쳐 펼쳐진다. 빨강, 보라, 녹색, 파랑 등 다양한 색의 스펙트럼과 음향, 텍스트를 아우르는 전시는 그야말로 ‘토탈 패키지’ 예술이다. ‘멀티 스크린이 서로 얘기를 나누고 그것을 방해하지 않는 환경이 정말로 필요했다’는 작가의 말처럼 스크

1 영국런던런던트파크에서 지난 10월 9일부터 7새 동안 열린 아트 페어 프리즈 런던 2024에서 영국을 대표하는 예술가이자 영화감독인 존 아콤폴라와 협업해 조성한 160제곱미터(㎡) 규모의 ‘LG 올레드 라운지’. 이미지 제공_LG OLED ART **2** LG전자는 프리즈 런던의 공식 파트너다. Photo by 고성연 **3** 베니스 비엔날레 영국관 대표 작가로 선정된 존 아콤폴라는 지난 4월 LG OLED ART와의 협업 프로젝트로 진행된 전시 ‘Listening All Night to the Rain’을 선보였다. 북송(北송)의 시인 소동파의 시구에서 따온 전시 제목이다. 사진은 영국관 파사드를 장식한 세 개의 LG OLED TV 스크린. **4, 5, 6, 7** 존 아콤폴라는 가나 출신의 영국 아티스트로 참여한 사회 문제를 은유적이며 시적인 자신만의 방식으로 풀어낸다. 또 시대를 관통하는 대체로운 협업을 즐기는데, 이번 전시에서도 그런 면모를 발휘했고 마크 로스코한테 영감을 받았다는 다양한 색 스펙트럼과 빛의 조합 속에서 환상적인 영상 작업 프레임도 펼친다. 원하던 빛과 색감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LG OLED TV였다고 작가는 설명한다. 그가 ‘방세도록 빛소리를 듣는다’는 표현을 택한 배경에는 ‘능동적인 청취의 의미가 담겨 있다. 베니스 비엔날레는 오는 11월 24일 막을 내린다. **※** 3~7 John Akomfrah: Listening All Night to the Rain was commissioned by the British Council for the 60th International Art Exhibition - La Biennale di Venezia, 2024 **※** 3, 5, 7 Photo by Jack Hems **※** 4 Photo by Taran Wilkhu **※** 6 이미지 제공_LG OLED ART



린이 마주하고 병치되는 구도가 마치 ‘대화의 장’ 같았다. 협업을 아는 고수들의 화음이랄까, 시인 소동파(1037~1101)의 시구에서 따왔다는 ‘Listening All Night to the Rain’이란 제목의 전시를 통해 그는 비난의 목소리보다 ‘그때 우리가 귀 기울이며 들었다면 어땠을까?’라는 ‘능동적인 청취(listening as a form of activism)’를 제안했다. 전시실마다 그가 사랑하는 문화 예술인들과 협업한 흔적을 보는 즐거움, 그리고 충분히 보지 못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떠나는데, 신기하게 바 내리기 시작했다. 글 **고성연**



Essence of Extraleganza

탁월하고 정확한 워치메이커에서 시작해 금세공에 대한 노하우로 이룩한 명실공히 놀라운 하이주얼러까지. 메종 피아제가 걸어온 1백50년을 조망한다.

지금으로부터 약 1백50년 전인 1874년은 메종 피아제의 역사가 시작된 해다. 창립자 조르주-에두아르 피아제(Georges-Édouard Piaget)의 정확하고 탁월한 워치메이킹 실력으로 라 코트페(La Côte-aux-Fées)에 공방을 설립하고 역사에 길이 남을 '피아제'라는 브랜드명을 공식 등록했다. 일찍이 울트라-신 이스케이프먼트를 만드는 데 두각을 나타냈던 그는 '언제나 완벽, 그 이상을 추구하라'는 모토로 피아제 메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았다. 그 후 20세기 중반, 조르주-에두아르의 손자 제랄드 피아제(Gérald Piaget)와 발렌틴 피아제(Valentin Piaget)가 가업을 물려받으며 자체 상표권을 보유한 피아제 브랜드를 라 코트페에서 코트 다쥐르(Côte d'Azur)로 확장했다. 1950년대 후반, 이후에 피아제의 아이코닉한 워치인 알티플라노 컬렉션의 초석이 될 울트라-신 무브먼트를 성공적으로 출시함과 동시에 플래티넘과 골드를 사용한 시계만 제작하겠다는 과감한 결정을 내리며 앞으로 전개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피아제 워치와 주얼리 제품의 발판을 마련했다. 동시에 1959년 피아제 최초의 하이주얼리 워치 작품을

“**언제나 완벽, 그 이상을 추구하라. 피아제는 이 모토를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주얼리 시계의 미학을 마스터했습니다**”
by 피아제 CEO 벤자민 코마

탄생시켰다. 피아제는 이때부터 금세공에 대한 특별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금의 유연성을 활용한 독창적인 디자인을 선보였으며, 마치 쿠틀리 의상의 리본처럼 목과 손목에 밀착되어 착용자의 몸짓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이는 감각적인 작품들을 탄생시켰다. 이와 동시에 그해 6월 제네바에 이 하이주얼리와 위치를 전시할 첫 부티크를 오픈하며 고객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했다. 1966년, 피아제는 최초의 스톤 장식 다이얼 시계를 공개하며 메종만의 골드와 스톤을 다루는 기법에 대해 소개했다. 짙은 코발트 블루 컬러의 라피스 라줄리와 매력적인 줄무늬가 돋보이는 말라카이트가 사슬처럼 직조되어 영롱한 골드와 대비를 이루는 이 아름다운 위치는 앞으로 브랜드의 상징과도 같은 금세공 기법인 데코 팰리스(Décor Palace)의 예고편 같은 것이었다. 피아제는 이를 활용해 다이얼은 물론 촘촘하게 직조한 골드 브레이슬릿에도 나무껍질, 털, 서리 같은 자연 모티브의 패턴을 섬세한 텍스처로 새겨냈다. 이처럼 피아제는 금세공을 위한 아틀리에인 메티에 다르(Métiers d'Art)에 속한

된 장인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골드의 특별하고 섬세한 매력을 가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1960년대 시계 엔지니어링과 보석학을 공부한 제랄드의 아들 이브 피아제(Yves Piaget)는 쥘스톤 세팅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작은 워치 형태를 만들고 그것을 더욱 유연하게 다룰 줄 아는 금세공 기술과 쥘스톤 세팅 기술 등 디테일하고 섬세한 장인들의 노하우가 쌓이면서 피아제는 디자인에 한계가 없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주얼리 위치를 탄생시킬 수 있었다. 이는 하이주얼리 제작 기술에도 반영되며 하이 워치 & 주얼리 메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피아제는 지금도 '탁월함의 산실(Ateliers de l'Extraordinaire)'이라는 메종의 모토 아래 풍부한 역사 속에서 이어져온 탁월한 기술력에 골드, 쥘스톤 및 진귀한 보석을 결합시켜 한 편의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탄생시키고 있다. 이는 피아제가 알티플라노, 피아제 폴로, 라임라이트 갈라, 포제션, 피아제 선라이트, 피아제 로즈 및 엑스트라미 레이디 같은 진귀하면서도 상징적인 컬렉션을 선보일 수 있는 원동력이다.

Interview_ 피아제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

피아제가 걸어온 1백50년의 여정을 기념해 출시하는 하이주얼리 피스를 만나보기 전 현 피아제 CEO 벤자민 코마(Benjamin Comar)와 피아제 커뮤니케이션 & 이미지 디렉터 파테메 라레(Fatemeh Laleh)에게 의견과 감회를 물었다.

Style Chosun(이하 S) 피아제에 있는 동안 느낀 인상과 창립 150주년을 맞이하는 소감이 궁금합니다.

Benjamin Comar(이하 B) 저는 지금도 피아제에서의 첫날처럼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못할 만큼 매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다른 곳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죠. 피아제의 사람들은 열정적입니다. 모든 일을 훌륭하게 해내며 메종이 지닌 창의적인 유산을 더욱 발전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지니고 있어요. 피아제는 영광스러웠던 1970년대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그 덕분에 창립 15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날까지 메종의 기술, 다시 말해 노하우와 장인 정신, 그리고 피아제의 미학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본연의 세계, 진정한 정체성으로의 귀환인 것이죠.

Fatemeh Laleh(이하 F)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처음과 같은 비전을 지니고 있어요. 여전히 독특한 디테일에 감동받으며, 피아제가 나아가고 있는 길에 확신을 가지고 있죠. 창립 150주년을 맞이한 올해, 피아제가 지금까지 이뤄온 것들을 돌아보며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지만 동시에 과거 피아제 가문이 걸어온 길 앞에서 겸손한 마음이 듭니다.

S 창립 150주년을 맞이한 몇 안 되는 하이 워치 & 주얼리 메종입니다.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었던 피아제만의 노하우에 대해 알려주세요.

B 모든 것은 피아제 창립자가 지닌 선구자 정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피아제는 이 모토를 바탕으로 탁월한 울트라-신 디자인을 구현하고, 얇은 케이스 위에 자유롭게 고유의 미학을 표현하고, 다채로운 컬러의 장식용 스톤 다이얼을 더하며, 골드 브레이슬릿을 선보이고, 완전히 새로운 주얼리 시계의 미학을 마스터했습니다.

F 피아제는 이미 유쾌하고 세련되며 트렌디한 브랜드였습니다. 피아제 가문이 얼마나 앞서 나갔는지, 그리고 이브 피아제가 얼마나 매력적인 인물이었는지 여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별로 없죠. 그는 매우 강인

한 인물로, 피아제 소사이어티를 만들고 피아제 폴로 79 같은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탄생시키는 업적을 세우면서도 겸손한 자세로 장인들에 대한 존경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브 피아제가 6월 파리 전시회에 참석해 전시회에 숨겨진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기 위해 의도된 모든 디테일을 알아보고 감동받는 모습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S 이번 하이주얼리 컬렉션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B 새로운 컬렉션을 진정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고객입니다. 저는 구아슈부터 시작해 컬렉션이 제작되고 전시되기까지의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으나, 아무래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어려워요. 피아제의 노하우를 향한 완벽한 오마주와도 같은 이 컬렉션에 대해 모두가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이를 반영해 에센스 오브 엑스트라레간자(Essence of Extraleganza)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피아제란 무엇인지, 그리고 피아제를 독특하고 고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정수외도 같은 이름이죠.

F 이번 컬렉션은 피아제다운 매력이 돋보이는 컬렉션입니다. 커널리언 네크리스, 에메랄드 컷 시계, 에메랄드 네크리스를 보는 순간 바로 빠져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위대한 사진작가 알베르토 리초(Alberto Rizzo)의 서명을 더한 1970년대 프린트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올랐고, 이 분위기에서 영감을 받은 캠페인을 촬영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브리짓 티데르마이어(Brigitte Niedermaier)와 함께 캠페인을 완성했어요. 피아제에서 뭔가를 새롭게 발명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아제는 이미 모든 것을 갖춘 메종이고, 엄청난 영감을 주니까요.

S 이번 하이주얼리 컬렉션을 포함해 그동안 피아제의 주얼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제품이 있다면요? 그 이유도 함께 말해주세요.

B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는 커널리언 오렌지 네크리스를 선택하겠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우선 피아제 특유의 화려함과 우아함이 돋보이는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눈부시게 반짝이는 디자인으로 완성 되었으면서도 다양한 상황에 착용할 수 있죠. 두 번째 이유는 피아제의 섬세한 체인 제작 기술을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점입니다. 보통 하이주얼리 분야에서는 세팅을 가리기 위해 최대한 많은 수의 쥘스



톤을 사용하는 데, 피아제의 아티스틱 디렉터는 오히려 세팅이 더 잘 드러나도록 디자인을 고안했어요. **F** 선택하기 어렵지만, 에메랄드 컷 시계와 한눈에 사랑에 빠졌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마음속 깊숙이 자리하고 있을 만큼 오래 그려온 작품이었어요. 두 번째로 좋아하는 제품은 터퀴즈와 옐로 골드로 완성한 1960년대 빈티지 세트입니다. 정말 클래식하고 매력적이지요. 파리 런웨이에 현대적인 제품이 등장한 직후에 이 디자인을 감상했는데, 과거와 현재 사이의 우연이 정말 좋았습니다.

S 아름다운 하이주얼리가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B 가격대가 높은 상품은 하이주얼리든, 워치메이킹 작품이든 모두 상상 속 이미지를 구현해낸 것입니다. 탁월한 노하우를 보여주는 전시품과도 같으며, 그 안에 수많은 감정과 비전을 담고 있죠. 스톤은 언제 어디서나 보는 이들을 매혹합니다. 진정으로 까다로운 부분은 하이주얼리부터 데일리 파인주얼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이 화려한 기술과 효과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F 하이주얼리는 근본과도 같은 분야입니다. 또 피아제의 정수와 노하우를 표현하고 차별화된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는 완벽한 캔버스죠. 이 미학은 파인주얼리까지 풍성하게 확대됩니다. 높은 가치를 지닌 파인주얼리인 것이죠. 누구나 다이아몬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고유의 분위기를 빚어내고 매력을 발휘하려면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대비를 연출하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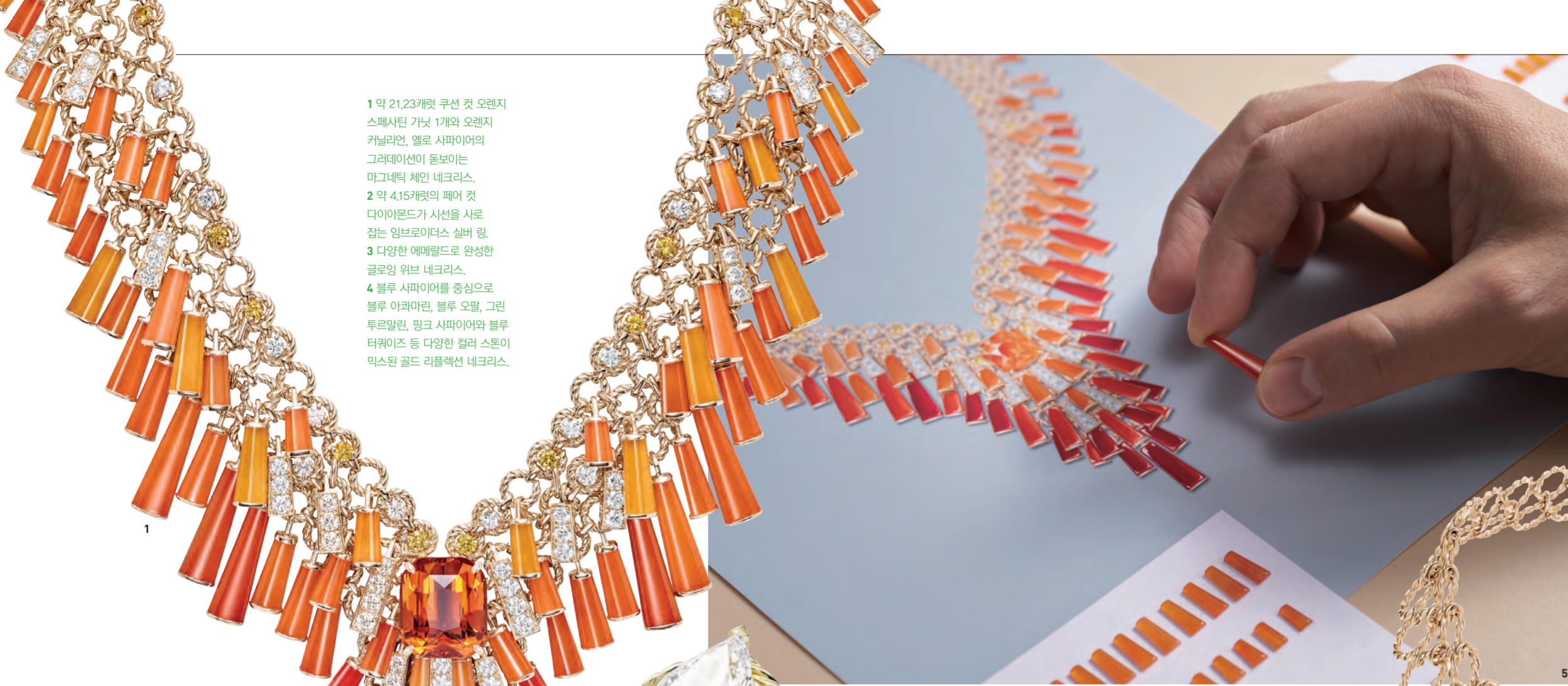
S 이번 하이주얼리 컬렉션을 통해 말하고 싶은 바와 어떤 컬렉션이 되었으면 하는지 포부를 알려주세요.

B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미처 몰랐던 것을 새롭게 발견하고, 피아제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웠던 과거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볼 때마다, 피아제 가문에 걸맞은 경의를 표했다는 뿌듯함이 들죠.

F 이번 컬렉션을 통해 놀라움을 선사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섬세한 디테일과 차별화된 매력을 만나보신 후, 다른 이미지들과 교차해 살펴보면 진정한 피아제의 미학을 느꼈으면 해요. 피아제 하이주얼리의 고객은 높은 안목을 지닌 분들입니다. 이미 클래식한 주얼리는 모두 보유한 분들이니만큼, 피아제를 선택했다는 건 메종만의 독특한 매력을 원한다는 거죠. 전문가의 눈길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행복을 줄 수 있다면 성공인 셈입니다.



1 제네바에 위치한 피아제 매뉴팩처. 2 아이코닉한 폴로79를 만든 이브 피아제. 3 피아제 커뮤니케이션 & 이미지 디렉터 파테메 라레(Fatemeh Laleh). 4 피아제의 주얼리와 워치 메이킹 기술을 보여주는 주얼 워치 몬트레 소투아(Montre Sautoir). 5 현 피아제 CEO 벤자민 코마(Benjamin Comar).



1 약 21.23캐럿 쿠션 컷 오렌지 스페서틴 가닛 17개와 오렌지 커널리언, 옐로 사파이어의 그레데이션이 돋보이는 마그네틱 체인 네크리스.
2 약 4.15캐럿의 페어 컷 다이아몬드가 시선을 사로잡는 임브로이더드 실버 링.
3 다양한 에메랄드로 완성한 클로잉 워브 네크리스.
4 블루 사파이어를 중심으로 블루 아라마린, 블루 오팔, 그린 투르말린, 핑크 사파이어와 블루 터퀴즈 등 다양한 컬러 스톤이 믹스된 골드 리플렉션 네크리스.

Essence of Extraleganza

매종 피아제가 창립 150주년을 기념해 하이 주얼리 및 워치 컬렉션 '에센스 오브 엑스트라레간자(Essence of Extraleganza)'를 선보인다. 피아제 스타일을 정립한 '21세기 컬렉션'이 탄생한 1960년대와 1970년대를 다시금 조명하고자 했다. 이로써 제네바에 위치한 피아제 하이 주얼리 워크숍에서 선보이는 탁월한 장인 기술을 바탕으로 제작된 96피스스의 제품이 완성되었다. 이 피스들은 유쾌하면서도 세련되고, 화려하면서도 다채로운 삶의 미학을 예찬한다. 더불어 골드와 젬스톤을 진정한 스타일을 지닌 작품으로 승화하고, 독특한 매력을 추구하는 자유로운 영혼의 애호가들에게 차별화된 매력으로 다가간다. 젬스톤의 다양성과 디자인 측면에서 쉽게 만나보기 어려운 풍부함을 자랑하는 150주년 기념 컬렉션의 주얼리는 피아제를 상징하는 '우아함과 화려한 빛의 예술', '피아제 소사이어티', 그리고 '탁월한 기술력'으로 눈부시게 피어나는 예술성' 등 세 가지 영역에 걸쳐 만나볼 수 있다.



우아함과 화려함의 빛의 예술

'화려함'과 '우아함'을 결합한 이름으로 완성된 첫 번째 챗터는 피아제의 독창적인 영혼과 아방가르드한 취향을 반영해 골드에 특별한 젬스톤을 세팅한 눈부신 모델로 이루어져 있다. 이 컬렉션에서는 피아제의 금세공 기술을 반영한 골드 및 플래티넘 체인에 다채로운 컬러의 젬스톤을 정교하게 세팅해 하이 주얼리 컬렉션다운 화려함을 보여준다. 특히 거의 모든 네크리스는 분리 및 결합이 가능해 네크리스뿐 아니라 브레이슬릿 등으로도 착용 가능하다.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골드 체인 위에 6.11캐럿 아라마린과 29.24캐럿 스리랑카산 옐로 사파이어를 비롯한 블루 및 그린 컬러의 비즈로 완성해 푸르른 아름다움을 반영한 스윙잉 쏘프와, 커널리언과 21.23캐럿의 스페서르타이트 가닛으로 아름다운 그레데이션을 완성한 네크리스, 1984년 제작한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티타늄 스카프 네크리스까지.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이 모든 피스들은 금세공과 젬스톤 세팅에 대한 피아제의 위대한 전문성을 느낄 수 있다. 피아제의 아이코닉한 테코 펠리스 장식을 더하기도 하고 창의적이고 섬세한 비대칭 디자인을 선보이기도 하며 디자인적으로는 물론 사람의 몸에 안착했을 때 부드럽게 밀착되는 착용감까지,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완벽성을 추구했다.

피아제 소사이어티

두 번째 챗터로 구성된 피아제 소사이어티는 피아제의 대담함과 주얼리에 대한 특유의 접근법을 예찬한다. 아방가르드한 스타일로 해석한 이 피스들은 1970년대의 화려함을 담았다. 특히 네크라인을 감싸는 레소를 연상시키는 룽 네크리스는 1천3백 개의 카보숄 컷 터퀴즈를 세팅한 디자인으로 마치 블루 컬러의 젬스톤으로 이뤄진 밧줄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여기에 6개의 매혹적인 터퀴즈 비즈를 더해 컬러감을 더욱 강조했으며, 맨 아래에는 터퀴즈 다이얼 위치를 숨긴 다이아몬드 및 골드 소재의 프린지로 완성해 특별함을 더했다. 이외에도 그린 투르말린, 스리랑카산 페어 컷 옐로 사파이어 등을 활용한 다양한 디자인의 네크리스와 브레이슬릿으로 컬렉션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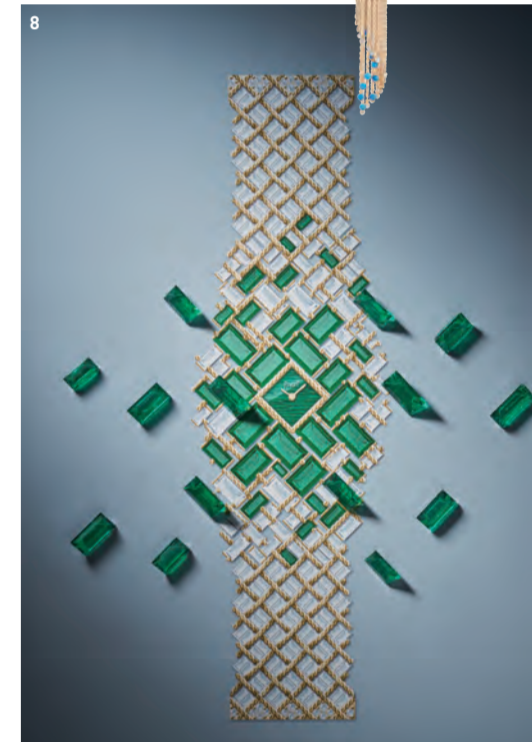


탁월한 기술력으로 눈부시게 피어나는 예술성

마지막 챗터를 장식할 이 영역에서는 피아제의 정교한 장인 기술과 쿠튀르 테마를 향한 유구한 취향을 함께 활용해 골드에 섬세한 텍스처를 더함과 동시에 놀라운 유연성을 부여하고자 했다. 특히 이번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잇는 공통된 요소인 코일 골드는 총 약 56캐럿에 이르는 로즈 및 바이올린 사파이어 26개의 조합이 돋보이는 화려한 커프에서 존재감을 발산한다.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골드 라인은 피아제의 독보적인 노하우를 드러낸다. 그뿐 아니라 40여 개의 콜롬비아산 바게트 컷 에메랄드를 찾아내고 이를 26.11캐럿의 그린 스톤과 조합해 매력적인 시계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이외에도 에나멜 다이얼을 갖춘 세련된 시계, 2.53캐럿의 에메랄드가 돋보이는 링, 비대칭 디자인의 이어링까지. 위치메이킹과 주얼리, 두 분야에서 쌓아온 피아제의 노하우를 상징하는 이 특별한 컬렉션은 디테일 하나하나를 구현해내는 피아제의 완벽주의 정신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문의 1668-1874 에디터 성장민



5 마그네틱 체인 네크리스 스톤의 컬러 그레데이션을 맞추는 모습. 6 옐로와 화이트 다이아몬드의 조합이 돋보이는 프레스스 워칭 이어링.
7 터퀴즈 컬러가 매력적인 리플링 태슬 네크리스.
8 임브로이더드 실버 커프 위치를 세공하는 모습. 9 오벌 블랙 오팔 골든 루프 네크리스.
10 골든 루프 이어링.
11 약 5.72캐럿 그린 에메랄드 1개로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 70개로 완성한 클로잉 워브 링. 12 오렌지 스페서틴 가닛과 커널리언, 옐로 사파이어의 컬러감이 아름다운 마그네틱 체인 이어링. 13 콜롬비아산 바게트 컷 그린 에메랄드로 완성한 피아제 주얼리 위치 임브로이더드 실버 커프 위치.



12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그라프 프로미스 스퀘어 에메랄드 컷 다이아몬드 인게이지먼트 링 무려 8.78캐럿의 에메랄드 컷 빅 다이아몬드 스톤을 세팅한 솔리테어 링 하나만으로 존재감을 자랑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2150-2320
포멜라토 누도 링 브랜드의 아이코닉 컬렉션 중 하나로 스톤에 대한 노하우를 엿볼 수 있는 제품. 옐로 골드 밴드에 15캐럿의 런던 블루 토파즈를 세팅해 아름다운 컬러와 볼륨감을 자랑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3143-9486
스티븐웹스터 노 리그렛 체를 쓴 플로팅 솔리테어 링 아티스틱한 디자인으로 사랑받는 스티븐웹스터답게 독특한 디자인의 화이트 골드 밴드에 총 0.25캐럿의 68개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하고 센터 스톤으로 0.75캐럿의 페어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완성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2231-1592

티파니 티파니™ 세팅 웨딩 링 다이아몬드를 가장 빛나게 하는 플래티넘 밴드에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1.1캐럿을 세팅한 솔리테어 링 가격 미정. 문의 1670-1837
프레디 프리티 우먼 인게이지먼트 링 사랑스러운 하트 모티프를 담은 프리티 우먼 컬렉션의 링으로 플래티넘 밴드에 하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안쪽에 포인트 루비를 더해 마무리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514-3721
불가리 로마 아모르 링 로마의 정신과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에서 영감받은,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주얼리 컬렉션이다. 로즈 골드 밴드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하고 중앙에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솔리테어 스타일로 세팅해 로맨틱한 무드를 완성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6105-2120
에디터 성장민

Charming Stones

볼륨만으로도 큰 임팩트를 부여하는 빅 스톤 링. PHOTOGRAPHED BY PARK JAEYONG

Sport Spirit

견고한 소재와 고사양, 세련된 디자인의 남성 럭셔리 스포츠 워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위블로 빅뱅 유니코 사파이어** 소재의 마술사로 불리는 브랜드답게 특별한 사파이어를 사용한 지름 42mm 케이스로 단단함과 내구성을 자랑하며 다이얼을 통해 무브먼트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1억1천만원대. 문의 02-540-1356
제니스 데피 익스트림 더블 투르비용 지름 45mm 카본 파이버 소재 케이스에 12개의 연과 베젤, 무서에 로즈 골드 디테일을 더해 웅장하고 고급스러운 감성을 준다. 더블 투르비용과 이스케이프먼트 1개, 크로노그래프용 이스케이프먼트 1개 및 0.01초 크로노그래프까지 모두 하나의 위치에 담아 놀라운 하이 컴플리케이션을 완성했다. 1억1천1백57만원. 문의 02-3479-1905
불가리 옥토 피니씨오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위치로 무광과 유광 마감 기법을 교차 적용해 혁신적으로 재탄생시켰다. 지름 40mm 사이즈의 새틴 폴리싱 처리한 옐로 골드 소재의 엑스트라-신 케이스에 선레이 마감 처리해 신비스러운 느낌을 주는 블루 레커 다이얼을 매치하고 두께 2.23mm에 불과한 울트라-신 매뉴팩처 무브먼트 BVL 138 칼리버를 탑재해 놀라운 기술력까지 갖췄다. 가격 미정. 문의 02-6105-2120
브레게 타임 20 크로노그래프 2057 프랑수아에 납품했던 브레게 항공 워치의 유산을 담은 워치로 지름 42mm 스틸 케이스에 기존 카프 스킨 스트랩에서 스틸 브레이슬릿 버전으로 새롭게 출시해 현대적인 세련미가 돋보인다. 7281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6905-3571
오데마 피게 로열 오크 셀프와인딩 크로노그래프 케이스부터 브레이슬릿까지 전체를 18K 옐로 골드로 제작해 럭셔리한 감성을 부여하는 워치로 지름 41mm 사이즈로 제공하며, 스모크 그레이션 효과의 그랑 티피스리 다이얼과 세 가지 골드 컬러 카운터를 매치해 현대적이면서도 빈티지한 느낌을 준다. 크로노그래프 칼리버 4401로 구동한다. 1억1천4백19만원. 문의 02-533-1351
블랑팡 피프티 패업즈 바티스카프 컴플리트 **캘린더 문페이즈** 블랙 세라믹 케이스와 그린 선레이 다이얼의 조화가 돋보이는 워치로 컴플리트 캘린더와 문페이즈 기능을 제공한다. 지름 43.6mm의 커다란 케이스 사이즈가 웅장한 느낌을 주며, 단방향 새틴 브러시드 블랙 세라믹 베젤이 스포티하고 남성적인 느낌을 준다. 3천7백만원대. 문의 02-3438-1833
파넬라이 섬머저블 포르체 스페치얼리 이탈리아 해군 특수부대를 위해 제작한 워치로 지름 47mm의 큼직한 사이즈와 견고한 티타늄 소재의 케이스가 돋보인다. 인덱스는 슈퍼루미노바® 처리했으며 300m 방수 기능을 갖췄다. 4천2백만원대. 문의 02-1670-1936
에디터 성장민

Get

The

List

당신의 스타일을 완성해줄 2024 F/W 필수 아이템.
PHOTOGRAPHED BY PARK JAEYONG



LOUIS VUITTON
감각적인 실루엣을 자랑하는 힐 디자인이 특징이며, 옆면에는 모노그램 디테일로 하우스의 헤리티지를 강조했다. 카프 레더 소재로 제작해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엷지 웨지 로우 부츠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TAG HEUER
하우스의 상징적인 사각 디자인을 모던하게 재해석해 39mm 그레이드-2 티타늄 소재의 케이스를 장착하고, 블루와 옐로의 대담한 컬러 팔레트에 현대적인 무드를 부각하는 스퀘어 다이얼을 더해 카리스마가 넘친다. TH20-00 오토매틱 무브먼트로 구동하는 모나코 세나 크로노그래프 다크 블루 에디션 1천6백49만원 태그하이어. 문의 02-548-6020



DIOR TIMEPIECE
(왼부터 차례대로) 총 0.32캐럿의 40개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9mm 스틸 케이스가 심플한 맛을 배가하며, 다이얼의 DIOR 로고와 새틴 패턴이 돋보이는 라 미니 디 마이 디올 타임피스, 하우스만의 아이코닉한 새틴 패턴을 브레이슬릿과 다이얼에 새겼으며, 19mm 골드 케이스에 총 0.32캐럿의 40개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라 미니 디 마이 디올 타임피스 모두 가격 미정 디올 타임피스. 문의 02-3280-0104



VACHERON CONSTANTIN
무려 5백48개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37.5mm 케이스, 다이얼, 링크 등 워치 전체에 정교하게 스노 세팅해 손목 위에서 아름답고 화려한 광채를 발산한다. 또 1백22년간 조경 없이도 정확한 문페이즈 기능을 갖추었으며, 기계식 매뉴얼 워인딩, 칼리버 1410 AS로 구동하는 트래디셔널 문 페이즈 가격 미정 바세론 콘스탄틴. 문의 1877-4306



POMELLATO
(왼부터 차례대로) 심플하지만 대담한 디자인이 눈길을 사로잡으며, 18K 로즈 골드 소재에 투르말린, 오렌지 사파이어, 블루 사파이어, 탄자나이트, 레드 스피넬, 블루 지르콘, 디멘타이드, 에미시스트를 다채롭게 세팅한 이코니카 맥시 링, 18K 로즈 골드 소재 베이스에 화려한 맛을 부각하는 다채로운 원석으로 포인트를 준 이코니카 벙글 모두 가격 미정 포멜라토. 문의 02-3143-9486



CHANEL
(왼부터 차례대로) 부드러운 램 스킨으로 완성했으며, 클래식한 디자인에 유니크한 컬러감을 더해 신선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클래식 11.12 핸드백, 고혹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버킨디 컬러가 특징인 유광 램 스킨 소재의 체인 클라치 모두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805-9628



아이소네프트 김보민



BVLGARI
(왼쪽부터 차례대로) 고대 신화 속 뱀에서 영감을 받아 기하학적이고 유려한 라인이 특징인 로즈 골드 소재의 세르펜티 네크리스 3천4백90만원, 섬세함이 돋보이는 뱀 비늘 디자인이 아름다운 실루엣을 완성하며,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로즈 골드 소재의 세르펜티 이어링 1천6백40만원 모두 불가리. 문의 02-6105-2120



RALPH LAUREN COLLECTION
카프 스웨이드 바탕에 웨스턴에서 영감을 받은 카프 스킨 인타르시아 모티프를 레이저 처리한 보디가 특징이며, 고혹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모카 컬러를 더한 RL 888 톨 카프 스킨 톱 핸들 4백70만원대 랄프 로렌 컬렉션. 문의 02-3467-6560 에디터 윤자경

Number 5, Forever

샤넬의 영원히 빛나는 숫자 5. 가브리엘 샤넬이 가장 사랑했던 행운의 숫자로 샤넬 하우스 내 어디에서든 새롭게 재해석되며 아름다운 창조를 이어간다. 샤넬 화인 주얼리 크리에이션 스튜디오에서 숫자 5의 굴곡진 실루엣을 따라 완성한 독보적인 N°5 컬렉션을 선보인다.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이터널 N°5 네크리스, 숫자 5의 굴곡진 부분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포인트를 주었으며, 18K 화이트 골드 소재로 완성한 이터널 N°5 링.



롱 네크리스를 여러 번 레이어링해 패셔너블한 스타일링을 완성했다.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베이지 골드 소재의 LES INFINIS DE N°5 변형 가능한 롱 네크리스,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18K 베이지 골드 소재로 완성한 이터널 N°5 링.





두 줄로 만들거나 손목을 가볍게 감싸 연출할 수 있으며,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18K 베이지 골드로 완성한 LES INFINIS DE N°5 변형 가능한 롱 네크리스.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장식해 광채를 발산하는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이터널 N°5 링.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와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조화로 심플한 멋을 자아내는 이터널 N°5 싱글 이어링, 18K 베이지 골드 소재의 이터널 N°5 싱글 이어링,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와 18K 베이지 골드로 완성한 이터널 N°5 브레이슬릿,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베이지 골드의 이터널 N°5 네크리스 모두 가격 미정 사별 확인 주얼리. 문의 080-805-9628 에디터 윤자경

레드 컬러의 벨티드 코트, 시스루
드레스, 프린지 디테일의 스커트, 스트랩
펌프스 모두 가격 미정 페라가모.

the COAT

당신의 겨울옷장을 업그레이드해줄 2024 뉴 코트 셀렉션. PHOTOGRAPHED BY LEE SANG HUN

레더 & 코튼 소재의 코트, 브라운 컬러의
램 스킨 소재 점프수트, 카프 스킨 소재의
버클 부츠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더블브레스트 시어링 재킷 1천5백50
만원 **미우미우**, 크리스탈 임브로이더리
칼라 디테일의 그레이 니트 카디건
5백30만원 **구찌**, 비스코스 크레페 저지
소재의 드레스 4백90만원 **로에베**.



그레이 울 소재의 체크 코트, 블랙
슬리브리스 울 소재의 터틀넥 톱,
울 소재의 스커트, 파스타치오
컬러의 라넨 스커트, 새틴 깃아웃
펌프스 모두 가격 미정 **프라다**.



패치워크 시어링 코트 1천8백50만원,
러플 오픈 스커트 가격 미정, 베를린
앵글부츠 2백63만원 모두 루이 비통.



램 시어링 소재 코트, 울 캐시미어
소재 풀오버, 스커트, 스웨이드 램 스킨
& 사야니 카프 스킨 하이 부츠, 메탈
소재의 이어링 모두 가격 미정 샤넬.



싱글브레스트 코트, 스타드 싱글 칼라
셔츠, 플리츠스커트, 레더 사이하이
부츠 모두 가격 미정 버버리.



페코라 네라 울 소재의 더블브레스트
코트, 필티드 재킷, 팬츠, 카프 스킨
소재의 발레리나 슈즈, 플라리 알파카
버킷 햇 모두 가격 미정 로로피아나.

헤어 마준호
메이크업 조혜민
모델 Angelika(Exclusive Model)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프라다 02-3442-1830
미우미우 02-541-7443
로로피아나 02-6200-7799
로에베 02-3479-1785
구찌 02-3452-1921
루이 비통 02-3432-1854
에르메스 02-542-6622
샤넬 080-805-9628
페라가모 02-3430-7854
버버리 080-700-8800

A Journey of Spanish Opulence

건축과 문화유산에 대한 특별한 존경심을 갖고 있는 루이 비통이 2025년 크루즈 패션쇼 장소로 선택한 곳은 바르셀로나였다.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건축물인 구엘 공원에서 열린 크루즈 패션쇼는 무궁무진한 스페인의 열정과 1980년대 향수에 대한 오마주로 가득 차 있었다.

건축가 이상의 존재인 안토니 가우디(Antoni Gaudi)는 오늘날까지 바르셀로나에서 독창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판타스틱한 또 하나의 세계와 같다. 역시 디자이너 이상의 존재로 인정받는 루이 비통의 아티스틱 디렉터 니콜라 제스키에르가 이 도시와 이 건축가를 선택한 것은 어쩌면 아주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이기도 한다.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가우디의 창작 세계는 그동안 니콜라 제스키에르가 보여준 루이 비통과 잘 어울린다. 특별한 건축 유기체인 구엘 공원에서 열린 루이 비통 2025 크루즈 컬렉션 패션쇼는 열정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스페인의 문화가 녹아들어 보는 이들을 매료했다.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 중 하나이자 랜드마크인 구엘 공원의 구불거리는 런웨이에서 시작된 오프닝은 블레로 햇과 미래적인 메탈릭 선글라스를 쓴 모델들의 캣워크로 시작되었다. 투우사나 플라멩코 댄서가 썼을 법한 큰 창틀의 블레로 햇은 언밸런스하게도 미래적인 액세서리와 어우러져 묘한 매력을 자아냈다. 상의는 각지고 과장된 어깨선과 라펠로 눈길을 사로잡았고 예상외로 모노톤과 뉴트랄한 컬러로 스페인의 강렬한 열정을 기대했던 이들에게 반전 매력을 선사했다. 1980년대 실루엣과 이국적이고 미래적인 액세서리의 조화는 클래식과 대담함의 충돌을 일으켜, 관객을 낚시지만 신선한 세계로 이끌었다. 오버사이즈 실루엣은 이번 루이 비통의 크루즈 패션쇼를 지배했다. 거대하고 위용 있는 스트리트와 빈티지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프린트 룩을 빛낸 아나 디 아르마스, 필릭스, 제니퍼 코넬리, 레이 셰이더, 유역비 등 전 세계에서 참석한 셀러브리티들.



1 과장된 빅 숄더와 날렵한 모자로 강렬한 인상을 준 오프닝 의상. 2 섬세한 소재와 부츠를 매치해 언밸런스한 매력을 보여준 록, 3 미래적인 선글라스와 메탈릭한 부츠가 눈길을 끈다. 4 풍성한 볼륨의 드레이프 블라우스와 버블 스커트. 5 화려한 이브닝 룩으로 손색없는 블레로 재킷과 버블 스커트. 6 로커를 연상시키는 강렬한 메이크업. 7 1980년대의 우아한 정장을 보는 듯한 레트로 스타일. 8, 9 로고 장식이 돋보이는 핸드백. 10, 11 액세서리 중 가장 눈길을 끌었던 프린지 부츠.

버블 스커트, 구조적인 날렵함이 돋보인 스트러처드 재킷, 한껏 부풀린 소매 등은 압도적인 실루엣으로 루이 비통이 보여주려고 하는 레트로와 퓨처리즘의 조화를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이어진 또 다른 스테이지에서는 비대칭적이고 자연스럽게 드레이프되어 흘러내리는 로맨틱한 블라우스와 승마복에서 모티브를 딴 조거 팬츠와의 매치가 눈길을 끌었으며, 상반된 텍스처의 믹스 매치, 단순함과 과도한 디테일의 어우러짐과 더불어 프린지와 레이스, 프릴, 시스루 폴카 도트 등 페미닌하고 사랑스러운 장식이 니콜라 제스키에르 특유의 카리스마 넘치는 코스튬으로 재탄생되어 감탄을 자아내기도 했다. 가우디의 건축물에서 볼 수 있는 소용돌이치는, 때로는 뒤틀리고 서로 영긴 듯한 초현실적인 디자인이 루이 비통의 패션을 통해 재현된 느낌이다. 시공간을 초월하며 시대와 스타일의 아름다우면서도 소중히 조화를 보여준 니콜라 제스키에르의 2025 루이 비통 크루즈 패션쇼, 스페인의 열정, 1980년대의 향수, 클래식과 스포티함의 조화, 미래지향적인 퓨처리즘에 대한 기대... 이 모든 것들이 가우디의 동화적인 구조물과 어울려 보는 이들을 새로운 여정으로 이끌었던 매혹적인 순간들. 니콜라 제스키에르의 또 하나의 멋진 이정표로 기억될 듯하다. 바르셀로나 현지 취재 #LVCRUISE25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몽클레르 레 소메 몽클레르 씨엘 디베
 네롤리의 플로럴 향으로 시작해 강렬한 핑크 페퍼, 싱그러운 옐로 만다린과 우디 머스크가 코끝을 스치며, 샌들우드와 앰브렛, 네롤리의 조화로운 향으로 마무리된다.
 100ml 26만원. 문의 080-800-8809
칼리안 울드 패션드 18년 동안 숙성한 싱글 몰트의 맛에서 영감을 받은 깊은 위스키 향이 특징. 은은한 플로럴 향과 시더우드 향의 만남은 안개가 자욱한 스코틀랜드 숲을 연상시키는 동시에 과거 스코틀랜드 고지대 저택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50ml 가격 미정. 문의 02-514-5167
팬탈리곤스 더 덴디 EDP 19세기 초, 영국 남성을 상징하는 덴디 스타일과 당시 신사들이 즐겨 방문한 스파크이지 바를 모티브로 한 향. 오랜 시간 오크 통에서 숙성된 위스키 향을 완벽히 재현했으며, 여기에 세드라, 베르가모트, 라즈베리 향을 더해 강렬한 인상을 준다.
 100ml 31만원. 문의 080-363-5454
젤랑 라르 & 라 마티에르 칼렉션 파출리 파리 신선한 알데히드 뒤로 이어지는 파출리와 파우더리한 우디 아이리스, 그리고 관능적인 머스크 향의 조화가 파리의 낭만적인 밤을 떠올리게 한다. 100ml 52만원. 문의 080-343-9500
에디션 드 파퓌 프레데릭 말 데저트 쟈 컬렉션 흙 세계적인 조향사 도미니크 로피옹의 데저트 쟈 컬렉션에 우디 향을 새롭게 추가했다. 프랭킨센스와 베티베르에 이어 느껴지는 스파이시한 핑크 페퍼, 사이프라스와 주니퍼 고유의 나무 향이 독특하다. 50ml 92만원. 문의 02-790-0577
에르메스 바레니아 오 드 파퓌 일리의 섬세한 향에 참나무와 파출리 향을 곁들여 자신감 넘치는 여성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이 매력적인 향을 고스란히 담아낸 보틀은 에르메스 브레이슬릿 하던 가장 먼저 연상시키는 콜리에 드 시잉에서 착안해 완성했다. 100ml 27만원. 문의 02-3479-1368
 객원 에디터 김하얀

Autumn Impression

그 어느 때보다 깊고 그윽하게 온몸을 감싸 안는 아늑한 늦가을의 향. PHOTOGRAPHED BY PARK JAEYONG



유행부터 가죽 로고 태그 디테일이 돋보이는 캐시미어 리오노라 백 499,390원 기브리엘라 하스트
 앞면의 가죽 로고 태그 디테일이 돋보이는 캐시미어 잉글리시 림 울린 베니 65만원 아노나.

100%의 도톰한 소재로 컬러의 캐주얼한 느낌이나, 1백99만원 아가네 나미 비 폴. 몸보이는 바베우스 플라자

고급스러운 자개 단추로 포인트를 준 펌 시어링 롱 코트 가격 미정 아노나.

Ready for Winter

가을, 겨울 패션에서 보온성과 스타일리시함 모두 놓치고 싶지 않은 여성들을 위한 셀렉션.



큰 케이블이 질감과 부피를 더해 주며 포인텔 홈이 가벼운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인 엔시아 스웨터 1백97만원 기브리엘라 하스트

100% 캐시미어 소재의 자베리노 스카프 85만원 아노나.

시그니처 R 로고 패치가 포인트로 올라 캐시미어 혼방 소재가 따스한 느낌을 주는 펠티드 스웨트셔츠 2백58만원 로사스 by 폴.

폴 02-3449-5359 기브리엘라 하스트 02-3438-6132 아노나 02-3449-8942

100% 송아지가죽에 비스킷 로고 버클이 포인트를 더하는 빈 로고 벨트 78만원 아노나.

예술가 니나 시몬의 이름을 딴 시그니처 디자인으로 구조화된 롱 핏들이 특징인 니나 레디 백 3백 97만원 기브리엘라 하스트.

다리를 완벽하고 슬림하게 연출해주는 유연하고 세련된 울트라 울트라의 레인 핏츠 1백99만원 기브리엘라 하스트 에디터 장정민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실용성이 뛰어난 소퍼 백 스타일의
 다이아(D) 폴리오 미디엄 백. 중앙의
 타원형 로고를 이어지는 스티칭 장식이
 자연스러운 솔릿을 연출한다. 2백60
 만원 **토즈**. 문의 02-3438-6008
 가볍게 패딩 처리해 볼륨감을 부여한
 감각적인 실루엣의 아르카디 톨
 핸들 백. '위스키' 색상 스웨이드
 소재와 동일한 컬러의 바니시 메탈
 레더링 로고를 더했다. 3백70만원대
미우미우. 문의 02-541-7443
 헤리티지 디자인을 차용한 라운드
 클래식스가 돋보이는 기예라 미니
 해링본 백. 계절감을 강조한 소재와
 컬러가 눈길을 끈다. 길이 조절 가능한
 슬더 스트랩을 갖췄다. 가격 미정
로로피아나. 문의 02-6200-7799
 1970년대 로고를 재해석한 큼직한
 골드 메탈 클래식스와 함께 가방
 전면을 미니 스티드 디테일로 장식한
 탄 트라운프 백. 가격 미정 **셀린느**
 by 에디슬리먼. 문의 1577-8841



Brown

VS Black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매종의 아카이브 속 리무진 트렁크의
 매끄러운 라인에서 영감을 얻은
 견고한 실루엣의 가브리엘 BB 백.
 매트 블랙을 접목한 M자형
 트윈스트 클로저가 아이덴티티를
 강조한다. 6백27만원 **모이나**.
 문의 02-2254-4150
 켈티드 벨벳 소재와 골드 톤 메탈
 장식이 어우러져 클래식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미니 사이즈 체인 클러치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805-
 9628, www.chanel.com
 섬세한 비즈 플로럴 아플리케 장식으로
 매미닌 무드를 극대화한 갤러리아 백
 가격 미정 **프라다**. 문의 02-3443-6047
 폴라드 인트레치오 수공 기법으로 완성한
 부드러운 가죽 소재의 칼리메로 씨타
 백. 큼직한 돛(knot) 디테일과 메탈릭
 링을 통해 유연하게 이동하는 슬라이딩
 슬더 스트랩이 특징이다. 6백30만원대
보태가 베네타. 문의 02-3438-7682
 객원 에디터 **이혜미**



F/W 시즌 워드 오브 브를 완성할 브라운 vs 블랙 컬러 백. 당신의 선택은?
 PHOTOGRAPHED BY CHOIMINYOUNG



만다린 오리엔탈 메이페어 in 런던



Blooming in Mayfair

'만다린 오리엔탈(Mandarin Oriental)'은 '글로벌'을 지향하는 많은 브랜드들이 내세우는 '동서양의 만남(east meets west, 혹은 west meets east)'이라는 관용적 표현을 호텔업계에서 가장 세련되게 체화하고 있는 사례로 꼽을 만하다. 그 내력을 살펴보면 2명의 미국인이 태국 방콕에 1876년 창립한 '더 오리엔탈'을 원조로 둔 계열의 호텔과 1963년 홍콩에 문을 연 '더 만다린(The Mandarin)' 호텔이 1985년 합쳐져 현재의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 그룹이 탄생했으므로(홍콩에 본사를 둔 영국계 자던 매시선 그룹의 자회사) 수궁이 되는 브랜드 이미지다. '원조'가 자리한 동양의 두 도시와 영국 런던이 지니는 의미가 특별한 건 당연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상징적인 럭셔리 호텔 중 하나인 만다린 오리엔탈 하이드 파크에 이어 6월 초 런던의 또 다른 중심부에 새로운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문화 예술 애호가에게 최상의 접근성을 선사하는 위치로 꼽히는 메이페어에 문을 연 만다린 오리엔탈 메이페어를 소개한다.



런던에서 메이페어는 유서 깊은 부촌의 상징이다. 2년여 전 작고한 엘리자베스 2세의 출생지이기도 할 만큼 상류층 주택가를 끼고 있음은 물론 내로라하는 럭셔리 브랜드들의 플래그십 매장이 들어서 있는 본드 스트리트, 전통 깊은 상점이 많은 로열 아카데미와 별립턴 아카데미, 맞춤형 수트의 메카라 불리는 거리인 새빌 로(Savile Row) 등으로 명성이 높고 곳곳에 근사한 레스토랑과 카페가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또 미술 애호가들에게는 영국 왕립미술원(Royal Academy of Arts) 같은 미술관을 비롯해 유수 갤러리, 옥션 하우스 등이 모여 있는 '아트 허브'로도 각인되어 있다. 컨템퍼러리 럭셔리 호텔로 비상한 관심을 누리는 만다린

오리엔탈 메이페어를 우리에게도 친숙한 브랜드 프리즈(Frieze)의 원조인 프리즈 런던이 열리는 기간(10월 9~13일)에 잠시나마 머물 보금자리로 삼는다는 건 확실히 행운이 깃든 선택이 아닐까.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만의 고유한 품격을 갖추면서도 보다 세련된 컨템퍼러리 느낌을 자아내는 럭셔리 호텔 만다린 오리엔탈 메이페어는 런던 웨스트엔드의 변화한 동네임에도 쾌적하고 조용한 하노버 스퀘어의 한 자락에 자리하고 있다. 메이페어 지역에서 10년 만에 처음 생긴 호텔 건축물담가 가까이 다가갈수록 인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지언 양식의 테라스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붉은색 벽들을 청문과 교대로 세로 줄무늬처럼 입힌 은근히 현대적인 파사드의 차별성이 느껴진다. 스위트룸을 포함한 50개 객실과 더불어 호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이빗 레지던스를 동시에 품고 있는 이 건축물은 이제는 고인이 된 건축 거장 리처드 로저스가 창립한 RSHIP가 설계를 맡았다. 첫인상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호텔 로비는 단정하면서도 벽을 감싸며 곡선을 그리는 따스한 나무 조각 덕분에 따스하면서도 리듬감을 띤다. 로비 층에는 인스타그램에 자주 등장하는 진한 청록색의 대리석 계단이 아래로 나 있는데, 위가 풀린 채 시원하게 펼쳐진 레스토랑 공간으로 이끌어준다. 호텔의 F&B 총괄을 맡은 한국계 스타 셰프 아카라 백(백승욱)이 이끄는 동명의 일식 레스토랑 '아카라 백'과 더불어 최근 문을 연 오붓한 한식 파인 다이닝 '도사(DOSA)'가 자리한 공간이다. 양껏 시켜도 위에 부담을 주지 않을 듯한 가볍고 건강한 느낌의 다양한 퓨전 메뉴를 갖춘 아카라 백의 정찬은 물론

1 만다린 오리엔탈 메이페어 건물 외관. 유수 갤러리들이 모여 있으며 10월 초 리젠트 파크에서 프리즈 런던이 열릴 무렵 디자인 페어인 PAD 런던도 메이페어에서 열린다. 2 만다린 오리엔탈 메이페어의 미식 공간을 품은 아트리움. 3 나무 설치 작품과 편안하고 세련된 감성의 라벤스 공간. 4 손수 채색한 실크 벽지가 시선을 끄는 만다린 오리엔탈 메이페어 '딜릭스 스위트'의 거실. 5 스파 시설 내에 있는 25m 길이의 실내 수영장은 청담 옹양 테라피 시설도 갖췄다. 6 스위트파택션. 시드(Seed) 등의 브랜드를 활용하는 스파 트리트먼트. 7 유서 깊은 만다린 오리엔탈 런던 하이드 파크의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인 디너 바이 헤스턴 블루멘탈 내부. '디너'는 메인 식사를 뜻한다. 8 영국식 요리를 창조적으로 재해석하는 디너 바이 헤스턴 블루멘탈의 '미트 프루트(Meat Fruit)'. 1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소스를 반영한 레시피 출처가 메뉴에 담겨 있다. * 1~8 이미지 제공: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 그룹

이고 아침에도 김치와 햄을 곁들인 롤빵을 즐길 수 있는 식단은 기본 좋은 고객지감을 느끼게 한다. 이처럼 메이페어의 빼어난 아시안 레스토랑과 더불어 영국식 요리를 재해석한 창의성과 미감으로 유명한 만다린 오리엔탈 하이드 파크의 레스토랑인 '디너 바이 헤스턴 블루멘탈(Dinner by Heston Blumenthal,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에서도 알 수 있듯 런던의 미식 수준이 형편없다는 것도 옛날 얘기다.

만다린 오리엔탈 메이페어의 객실 인테리어 디자인은 스튜디오 인디고가 맡았는데, 운 좋게도 해사한 햇살이 막 스며들기 시작한 오후에 들어선 스위트는 그야말로 '동서양의 조화'가 우아하게 어우러진 공간이었다. 풍부한 에메랄드빛과 은지 있는 진한 자주색, 은은한 터퀴즈, 그리고 매혹적인 갈색 톤의 색조. 영국의 '왕실 벽지'로도 유명한 18세기 핸드 페인트 벽지를 재현하는 브랜드 드 쿠르네에서 손수 채색한 실크 재질의 아름다운 월 커버링과 고혹적인 패브릭의 향연 같은 드레스 룸, 포근한 정갈함이 묻어나오는 거실 등은 오토 쿠튀르에서 영감받아 모든 객실 공간을 보석함처럼 상상했다는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다. 게다가 아시아인에게 특히 촉매 느껴지는 대다수의 런던 호텔과 달리 열선을 깔아 욕실 바닥부터 살짝 누르면 튀어나오는 충전 스탠드 등 세 호텔당 눈에 보이지 않게 세심히 반영한 '기술'로 인한 안락함이 장점이기도 하다. 좀처럼 떠나기 싫은 안식처지만 프리즈 런던에 맞춰 일제히 간판 전지를 내건 인근 갤러리를 돌아보는 '아트 산책'을 나가는 길에 다시 한번 만다린 오리엔탈의 브랜드 캠페인에서 빠지지 않는 요소이자 그룹 심벌인 '부채' 작품을 마주했다. 호텔마다 유일한 디자인의 부채 작품을 로비에 전시하는데, 메이페어의 경우 패션 브랜드 비비안 웨스트우드와 협업해 핸드크래프트 디자인을 차용했다. 호텔이 자리한 하노버 스퀘어를 배경으로 춤추는 남녀의 모습이 담겨 있으며, 그 경쾌함이 전이되어 산책의 발걸음도 절로 가벼워지는 듯했다. 글 **고성연**



Best Choice

사적인 공간에 나만의 취향을 반영해줄 독특한 홈 데코레이션 리스트.



영화 <라이언 킹> 개봉 30주년을 맞아 디즈니와 협업해 선보인 '라이언 킹' 홈 컬렉션의 무파사 피겨인. 정교한 크리스탈 세공 기술로 제작한 다양한 골드 컬러 웨이가 특징. 78만원대. 문의 1522-9065



시칠리아 마올리카에서 영감받아 블루와 화이트 컬러가 조화를 이루는 패턴을 새긴 비알레타와와 협업 작인 '블루 메디테라네오' 컬렉션의 미디어믹 모카 익스프레스 15만원대. 문의 www.dolcegabbana.com



수술실 무영등에서 영감받아 링 형태의 디자인을 완성했으며, 고연색의 자연광으로 장시간 사용 시에도 눈이 편안한 아몰레포 투럼 트리니티 오리지널 54만4천원. 문의 1600-1547



투명한 크리스탈로 제작했으며, 나비의 날갯짓을 모티브로 해 우아한 실루엣을 자랑하는 블루 컬러의 럭키 버터플라이 35만원. 문의 02-3448-3778



아이코닉한 텍스타일 패턴을 프린팅한 54장의 플레이 카드와 카드 보드 또는 카드 보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렌지 컬러의 카드 세트 23만원대. 문의 02-542-6622



도자기 소재로 제작해 내구성을 더했으며, 앞면의 브랜드 시그니처 랄프스 커피 타이포를 새겨 고급스러운 무드를 배가한 에스프레소 컵 & 소서 세트 6만9천원. 문의 02-6004-0221



창립자 트리오의 사무실에서 영감받은 매종 최초의 문구 컬렉션인 '오피스 액세서리'의 다이아몬드 그라파이트 패턴 노트패드와 피콕 패턴 오벌 연필꽂이 각 14만7천원, 10만3천원. 문의 02-3446-7494



시골집을 형상화한 미니 램프로 휴대감이 좋아 어디서든 무드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제품 후면 작동 버튼으로 3단계 빛 조절이 가능한 스페이스 S 루프 선오렌지 3만9천원. 문의 1800-5402



동근 세이프 하단의 트러블 링을 모티브로 한 장식이 특징인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방동 루이 까르피에 보틀 오픈너 가격 미정. 문의 1877-4326 에디터 **신정임**



버버리 뷰티 비온드 볼륨 마스크라 볼륨과 컬링을 동시에 해결해주면서 번지지도 않고, 잦은 마스크라에 속눈썹이 빠지고 약해지지 않게 강화해주는 레드 클로버 추출물과 테트라 펩타이드를 함유해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한 제품. 지속력과 속눈썹 건강, 두 가지를 챙길 수 있어 데일리로 사용하기 제격이다. 8ml 5만2천원. 문의 080-850-0708 .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라부르캣 씨 솔트 스크럽 세이지/모즈마리/라벤더 건조한 공기가 피부로 느껴질 때, 각질 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 씨 솔트를 사용해 건조한 부위를 효과적으로 케어해준다. 또 아몬드 오일을 함유해 묵음 후에도 풍부한 보습감을 느낄 수 있다. 420g 6만9천원. 문의 1644-4490 .by 에디터 윤자경

Editor's Pick

헤어부터 보디까지 건강하고 탄력 넘치는 피부 컨디션을 선사할 뷰티 리스트.

르네튀테르 까리떼 프로페셔널 너리싱 샴푸 모발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에 샴푸 역시 신중하게 고르는 편. 이 샴푸는 단 한 번의 사용만으로도 모발에 수분감과 윤기를 더해주고, 부드러운 젤 텍스처 덕분에 크리미하고 풍성한 거품이 생겨나 두피까지 말끔하게 세정할 수 있었다. 200ml 3만2천원. 문의 1660-1451 .by 에디터 윤자경

상태카이 길디드 가든 림 크리스탈 핑크 토포즈 쉐드릭 야생동물 재단과 함께 선보인 홀리데이 에디션으로 립스틱 1개당 나무 1그루를 케냐에 심는다. 안전성과 윤리성이 검증된 마이가 파우더를 글리터 대신 사용해 화려하게 반짝인다. 부담 없이 바르기 좋은 레드 브라운 컬러. 4g 8만4천원. 문의 070-4370-7511 .by 에디터 신정임

샤크 플렉스타일 컴팩트 멀티 헤어스타일러 광장한 바람 세기로 빠르게 머리를 건조해주어 편리하다. 또 110℃ 이하로 온도를 유지해 과도한 열 손상으로부터 모발을 지켜준다. 덕분에 펌으로 손상된 모발도 안심. 44만9천원. 문의 1644-9245 .by 에디터 성정민



다이슨 코리아 다이슨 키토산 프리 스타일 크림 드라이어 사용 전 모발을 코팅해 열 손상으로부터 지켜주는 스타일링 크림. 키토신이나 헤어 팩 사용이 번거로울 때 스타일링 크림을 사용하는데, 이 크림은 텍스처가 부드럽고 끈적이거나 잔여감이 남지 않아 매우 만족스럽다. 100ml 7만9천원. 문의 1588-4253 .by 에디터 성정민

NEW PERFUME

바이레도 모하비 고스트 압슬루 오드 퍼퓸 극한의 환경에서도 생존하는 고스트 플라워에서 영감받았으며 목직한 샌들우드와 산뜻한 플로럴 노트가 조화를 이루어 은은하면서도 고스트 플라워의 강인함이 느껴지는 매력적인 향. 목공예 양식으로 완성한 보틀의 블랙 캡이 유니크하다. 50ml 1533-7305 .by 에디터 신정임

올라플렉스 본딩 오일 모발 보호는 물론 가벼운 스타일링까지 가능한 고농축 오일로 물기 있는 모발 또는 마른 모발에 모두 사용 가능하다. 소량 사용했을 땀 기운 있는 머릿결을 연출해주며 다량 사용하면 트랜드한 웨트 헤어 스타일링을 하기에 적합하다. 30ml 4만3천원. 문의 02-3443-6551 .by 에디터 성정민

지방시 뷰티 프리즘 리브르 하이라이터 N14 XMAS 24 피복결을 깔끔하게 정돈해주는 것은 물론 삼페인 베이지와 진주빛 컬러 조합이 자연스러운 생기를 더해준다. 4G 로고를 새긴 홀리데이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했으며 미니 사이즈라 귀여움은 덤. 6g 7만4천원. 문의 080-801-9500 .by 에디터 신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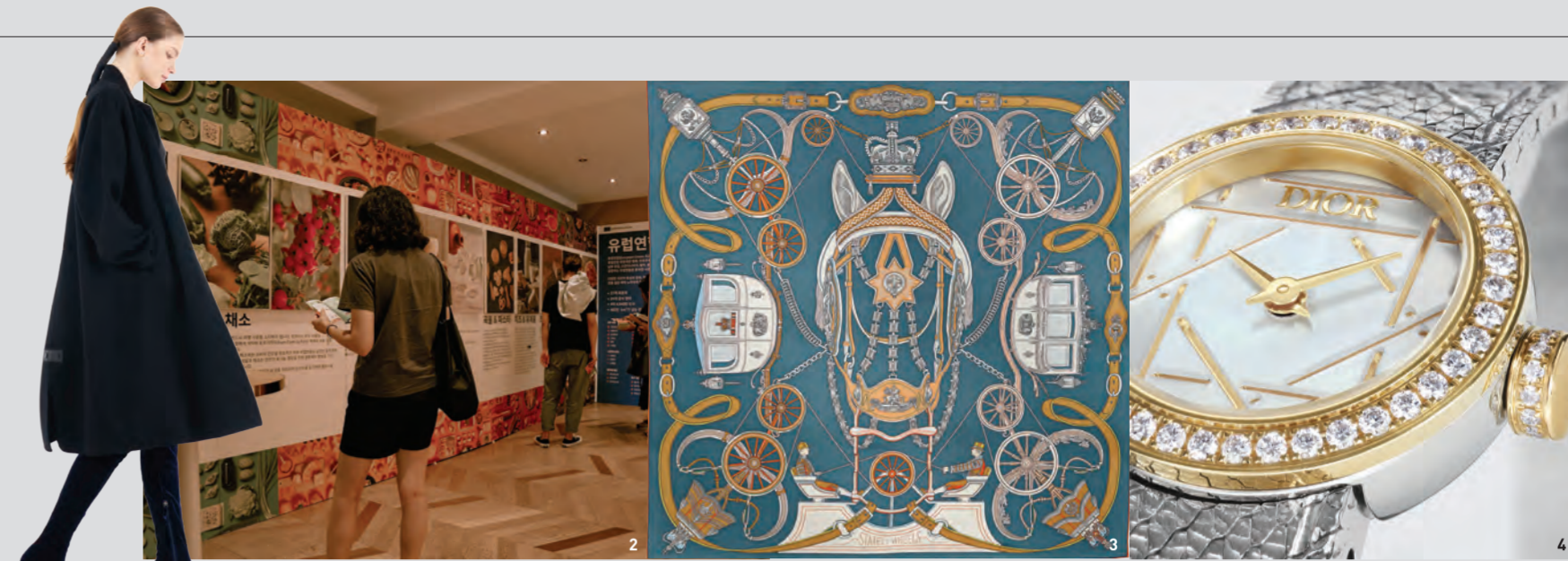
디올 뷰티 디올 크림 아브리코트 - 핑크 리미티드 에디션 손톱 거스러미가 신경 쓰이던 찰나 만나게 된 네일 케어 크림. 영양을 공급하는 아프리카 오일과 매끄러움을 선사하는 해초 추출물을 함유해 윤기 나는 네일을 완성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단독 선출시되었다고 하니, 가볍게 선물하기 제격인 듯하다. 8g 4만3천원. 문의 080-342-9500 .by 에디터 윤자경

샤넬 뷰티 다이아몬드 더스트 2024 샤넬 윈터 테일 컬렉션 제품으로 얼굴의 입체감을 살려줄 피치 핑크 하이라이터. 진주빛 입자를 함유해 코, 눈 앞머리, 광대에 발라 화사하고 입체감 있는 메이크업을 연출하기에 좋다. 15g 12만6천원. 문의 080-805-9638 .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NEW HAIRDRESS



* 상영관(30대, 미관영), 윤자경(30대, 권영), 신정임(20대, 박현영), 김보민(20대, 지복현영)



1 카자 럭셔리 풀 캐시미어 코트 시리즈 하이엔드 컨템퍼러리 디자이너 브랜드 카자에서 럭셔리 풀 캐시미어 코트 시리즈를 제안한다. 100% 캐시미어 원단을 사용해 핸드메이드 기법으로 제작했으며, 풀 캐시미어 시크 루스 핏 로브 벨티드 코트, 풀 캐시미어 엘레강스 퍼프 소매 롱 코트 등 다양한 제품을 공개했다. 문의 02-3445-5474

2 유럽연합(EU) 유러피안 푸드 익스프레스 유럽연합(EU)이 '진짜 유럽의 걸작을 맛보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올 동안 유러피안 푸드 익스프레스 팝업을 진행했다. 한국 소비자가 지리적 표시 제도(GI)의 중요성과 유럽연합 유기농 로고를 이해하도록 돕고자 개최한 이번 행사는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의 다양한 식재료 맛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그 밖에 유럽연합 농식품을 활용한 쿠키 클래스, OX 퀴즈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경험할 수 있었다. 문의 02-3452-9495

3 에르메스 다가오는 겨울맞이 스킨프 제안 에르메스에서 다가오는 겨울을 맞이해 '스테이틀리 휠즈(Stately Wheels)' 스킨프 90'을 제안한다. 영국의 일러스트레이터 스튜어트 페이스스가 왕실 마구간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했으며, 각 모서리에 영국 연합 왕국인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등 4가지 국가 상징을 더해 유니크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낸다. 문의 02-542-6622

4 디올 타임피스 라 디 마이 디올 디올 타임피스에서 디올의 아이코닉한 까나쥬를 더한 '라 디 마이 디올' 컬렉션을 출시했다. '시간을 알려주는 라본' 콘셉트의 기하학적 패턴 브레이슬릿으로 제작했으며, 핑크 또는 화이트 머더오브펠 버전의 다이얼에 19mm, 25mm 사이즈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280-0104

5 샤넬 화인 주얼리 N5 컬렉션 샤넬 화인 주얼리에서 가브리엘 샤넬이 사랑했던 숫자 5에서 영감을 받아 N5 화인 주얼리 컬렉션을 선보였다. 이번

컬렉션은 골드로 제작한 숫자 5 모티브와 다이아몬드 세팅이 특징이며, 18K 베이지 골드, 옐로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이터널 N5 네크리스, 18K 베이지 골드, 화이트 골드로 이루어진 이터널 N5 브레이슬릿 등 다채로운 제품으로 구성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문의 080-805-9628

6 에르메스 에르메스켓 에르메스에서 즐겨 사용하는 기하학적인 테마가 돋보이는 워치, 에르메스켓을 제안한다. 스틸 및 로즈 골드 소재로 다이아몬드 없는 버전과 56개의 다이아몬드를 베젤에 세팅한 버전으로 선보였다. 메탈 브레이슬릿과 에르메스 컬러 팔레트에서 가져온 화이트, 오렌지 등 8가지 스트랩으로 구성했으며, 브레이슬릿과 스트랩을 교체할 수 있어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 가능하다. 문의 02-542-6622

7 폴라온지 에비혼 디어 핸들 구두주걱 폴라온지에서 쇼, 사슴, 양의 뿔과 뿔 등 천연 재료를 사용해 생활용품을 선보이는 에비혼의 '에비혼 디어 핸들 구두주걱'을 출시했다. 사슴 핸들과 소뿔 보디로 구성된 강한 내구성을 자랑하며 뿔 모양 핸들 디자인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문의 02-3438-6142

8 스위스퍼펙션 퍼펙트 리프트 크림 스위스퍼펙션에서 겨울을 대비해 퍼펙트 리프트 크림을 제안한다. 시그니처 성분인 셀룰라 액티브 아이리사(®)와 표고버섯 추출물, 오콜라타 추출물, 달맞이꽃 오일 등을 함유해 피부 탄력과 보습을 집중 케어하며, 피부 속부터 차오르는 광채와 리프팅 효과를 선사한다. 문의 1644-4490

9 시세이도 리바이탈에센스 스킨 글로우 파운데이션 시세이도에서 차가운 바람이 부는 요즘 날씨에 베이스로 제격인 '리바이탈에센스 스킨 글로우 파운데이션'을 선보였다. 시세이도의 독자적인 기술, 세럼 퍼스트 테크놀로지로 세럼을 바르는 듯한 발

Showroom



림성과 12가지 체이드로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시간이 지나도 갈라짐이나 다크닝 없이 12시간 유지되는 커버력을 갖추었다. 문의 080-564-7700

10 로로피아나 2024 홀리데이 컬렉션 이탈리아 하이엔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로로피아나에서 2024 홀리데이 컬렉션을 공개했다. 이번 컬렉션은 자수와 블랙 & 화이트 컬러로 세련미와 우아함이 돋보이는 이브닝 컬렉션과 노르웨이 전통 패턴에 화이트 및 베이지 톤 또는 라일락, 레드 등 포인트 컬러를 더한 아파트 스키 컬렉션, 2가지로 선보였다. 문의 02-6200-7799

11 루이 비통 테이블웨어 컬렉션 공개 루이 비통에서 하우스만의 창의성과 장인 정신을 담은 커블러, 유리잔, 디너트 등 다양한 테이블웨어 컬렉션을 공개했다. 점묘화가 연상되는 모노그램 플라워를 수작업으로 표현한 콘스텔레이션 컬렉션부터 루이 비통의 트렁크 못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14개의 커블러로 구성된 리벳 컬렉션 등 테이블을 빛내줄 아이템을 선보였다. 문의 02-3432-1854

12 샤넬 맥시 플렉 백 샤넬이 완벽한 가을 날씨에 데일리부터 특별한 날까지 즐기 좋은 맥시 플렉 백을 제안한다. 2024 F/W 시즌을 맞이해 샤넬 하우스의 모든 것이 시작된, 아름다운 도시로 손꼽히는 프랑스의 도시 도빌의 풍경을 모티브로 탄생한 맥시 플렉 백은 카프 스킨 소재로 제작해 내구성이 좋으며 맥시 사이즈로 넉넉한 수납공간을 자랑한다. 문의 080-805-9628



Pomellato